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18~19세기 지산리 庶系

동성촌락의 형성과정

- 경상도 대구부 수동면 호적대장 분석 -

2020년 7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김 미 영

18~19세기 지산리 庶系

동성촌락의 형성과정

- 경상도 대구부 수동면 호적대장 분석 -

지도교수 김 건 태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7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김 미 영

김미영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7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동성촌락은 조선후기 부계 친족 중심의 새로운 친족 질서를 바탕으로 출현한 대표적인 촌락 형태이다. 본고는 18~19세기 대구부 수동면 호적대장을 활용하여 지역민의 성관 및 부계 혈연관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동성촌락을 검토하고 그 형성 과정을 고찰한 글이다.

고문서를 활용한 동성촌락 연구는 동성촌락 내 동성집단의 규모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호적대장은 당대의 모든 신분과 다양한 성관의 지역민을 기록하여 동성촌락 내 동성집단의 규모를 확인하는데 용이하다. 이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와 조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부계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한 동성촌락 검토가 가능하다.

본고에서는 먼저 18~19세기 대구부 수동면 호적대장을 활용, 주호의 성관을 분석하여 수동면 리 내 동성집단의 집거를 알아보았다. 19세기 후반 대구 수동면 지산리에는 중화 양씨가, 범물리에는 밀양 박씨가 모여 살았다. 다음으로, 집거가 명확한 지산리와 중화 양씨와 범물리 밀양 박씨의 혈연관계를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 지산리 중화 양씨의 모든 호에서 혈연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범물리 밀양 박씨는 다섯 가계로 혈연관계가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9세기 후반 당시, 대구부 수동면에서 동성촌락은 중화 양씨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살았던 지산리였다.

지산리가 중화 양씨 동성촌락이 된 시기는 19세기경이다. 호적 자료에 따르면 18세기 지산리 중화 양씨 호는 다른 성관의 호수에 비해 그다지 큰 규모가 아니었다. 그러나 19세기가 되면서 급격하게 호수가 증가하여 19세기 후반이 되면 중화 양씨 호가 지산리 전체 호의 1/3을 차지하게 된다. 그 중 중화 양씨 양달화 후손들은 지산리 중화 양씨 동성촌락 형성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 19세기 후반 지산리 중화 양씨 거의 대부분은 양달화의 자손들이기 때문이다. 양달화는 18세기 인물로 양경림과 현풍곽씨 사이에서 난 서자였다. 18세기까지 지산리에는 중화 양씨 적계(嫡系)와 서계(庶系)가 함께 공존하였으나 점차 적계 호는 사라지고 서계인 양달화의 후손들이 주가 되어 중화 양씨 동성촌락을 형성하게 된다.

19세기 지산리에서는 본격적으로 양달화의 자손들 호가 증가한다. 이중 지산리에는 양달화의 장남 계열 후손보다 삼남 계열의 후손이 많다. 장남 계열의 경우 지산리 외 향덕리와 두천리에도 거주하고 있지만 삼남 계열은 모두 지산리에 집중적으로 거주했다. 한편 지산리의 중화 양씨들은 지산리 바깥의 수동면 중화 양씨와도 관계를 맺고 있었다. 특히 향덕리에 거주하는 중화 양씨와 빈번히 왕래했다. 이는 지산리의 중화 양씨와 향덕리 중화 양씨가 혈연적으로 가까웠기 때문이다.

호적 자료는 모든 신분과 계층, 성관을 망라한 자료이므로 호적 자료를 활용한다면 기존 동성촌락 연구에서는 알 수 없었던 다양한 동성촌락의 사례를 알아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서계 동성촌락 형성과정에 관련한 하나의 예시로서, 추가적으로 다른 지역 호적자료를 활용하여 동성촌락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조선후기 동성촌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어 : 동성촌락, 대구, 호적, 혈연관계, 서계, 촌락
학 번 : 2017-22457

목 차

머리말	1
一. 수동면 촌락 내 동성촌락 검토	6
二. 지산리 庶系 동성촌락	20
1. 嫡系 이탈과 庶系 동성촌락 형성	20
2. 계열 분화와 동성촌락 바깥의 동성집단	29
맺음말	41
참고문헌	44
Abstract	47

표 목 차

[표 1] 1714년~1876년 《수동면 호적》 里편제 변화	9
[표 2] 1876년 5개 리 별 성관 호수	12
[표 3] 5개 리 1위 성관 지속 기간	13
[표 4] 1876년 지산리 중화 양씨 혈연관계	14~15
[표 5] 1876년 지산리 중화 양씨 가계 정리	16
[표 6] 1876년 범물리 밀양 박씨 혈연관계	17
[표 7] 1876년 범물리 밀양 박씨 가계 정리	18
[표 8] 지산리 식년별 중화 양씨 및 주요 성관 호수 변화	21
[표 9] 19세기 지산리 대인·대직·대한 후손 호수	34
[표 10] 수동면 7개 리 내 중화 양씨 계열별 호 변화	37~38

그 림 목 차

[그림 1] 대구수 수동면 지형도	6
[그림 2] 1876년 수동면 리 별 성관 호 비율	11
[그림 3] 18세기 전반 중화 양씨 경림 가계도	25
[그림 4] 지산리 중화 양씨 달화·선화 계열 호 비율 변화	27
[그림 5] 1786~1876년 중화 양씨 달화-장남 후손 가계도	30
[그림 6] 1786~1876년 중화 양씨 달화-차남 후손 가계도	31
[그림 7] 1786~1876년 중화 양씨 달화-삼남 후손 가계도	32

머리말

조선후기 사족들 사이에서는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朱子家禮》와 같은 예법서가 널리 보급되었다. 이에 따라 사족들은 유교식의례를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조상 제사에서는 윤희봉사와 女壻·外孫의 참여가 줄어들고 적장자가 중심이 되어 제사를 주관했다. 아들이 없어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되면 집안에서는 외손봉사 보다는 동성동본의 부계 친족 남성을 입양하여 제사를 이어나갔다. 족보의 기재 방식도 변화하여 부계 친족 중심으로 기재하기 시작했으며 상속 방식도 남녀 균분 상속에서 적장자 중심의 차등 상속으로 변화했다. 동성촌락¹⁾ 출현은 이러한 조선후기 새로운 친족질서와 관련 있다.

조선 후기 동성촌락이 어느 정도 존재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1930년대 동성촌락에 대해 전국적인 조사를 했던 첸쇼 에이스케(善生永助)에 따르면 전국 28,336개의 중 동족부락이 14,672개로 보았다.²⁾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볼 때 19세기에도 동성촌락이 전국에 산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1) 동성촌락 외에도 비슷한 용어로는 ‘同族部落’, ‘氏族部落’, ‘동성마을’, ‘집성촌’, ‘동족마을’ 등이 있다. 동성촌락을 지칭하는 용어가 다양한 것은 동성촌락을 개념화하고 연구하는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장 먼저 동성촌락에 대해 연구했던 善生永助(첸쇼 에이스케)는 동일한 조상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모여 사는 마을‘을 가리켜 ‘同族部落’이라 명명했다. 이후 김택규는 일본어의 同族이 부계친족만을 한정된 용어가 아님을 지적하면서 ‘씨족부락’이라는 용어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1990년대가 되면 ‘동족부락’에서 ‘부락’이 일본의 천민 집단 주거지를 뜻하는 용어라는 문제 제기가 일어나게 되었고 ‘동성마을’이나 ‘동성촌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연구자들이 등장했다.

본 연구에서는 친족 집단의 집거 중에서도 부계 혈연의 집거를 확인할 것이다. ‘동족’ 중에서도 같은 성을 사용하는 집단인 집거를 확인하므로 이 글에서는 ‘동성촌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오영교, 2004 《강원의 동족마을》 집문당, 20~21쪽 참고.

2) 이 조사에서 첸쇼 에이스케가 동성동본호가 마을 전체 호의 10% 이상 거주 할 경우 동성촌락으로 보았기 때문에 동성촌락 수치가 과장되었다는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경향성은 인정되고 있다. 정진영, 1991, 〈조선후기 동성마을의 형성과 사회적 기능〉 《한국사론》 21, 국사편찬위원회 29쪽

기존 동성촌락 연구는 특정 지역의 洞契, 族契 자료와 같은 고문서나 족보 등 동성촌락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관련 성관의 자료를 분석하여 동성촌락의 형성 과정, 통혼권, 문중 활동 등을 밝혀냈다.³⁾ 이러한 연구 방법은 동성촌락을 심층적으로 다루어 동성촌락의 양상을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성촌락 형성을 주도한 성관의 활동이 연구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동성촌락 내 다른 성관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 즉 해당 동성촌락 내에 동성 집단이 어떻게 번성하고 영향력을 넓혀 갔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도 전체 마을에서 동성집단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거나 마을 내 다른 성관과 비교해 보는 작업은 할 수 없었다. 또한, 족보나 고문서와 같은 자료가 없는 촌락은 연구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자료를 많이 남길 수 있었던 양반들의 동성촌락을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2000년대 들어 호적대장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동성촌락 연구에 있어서도 새로운 길이 열렸다. 호적대장은 양반을 비롯한 소위 상류층뿐만 아니라 노비와 같은 최하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분의 사람들을 망라하고 있었으며 3년에 한 번씩 작성되어 시계열적인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호적에는 당대 사람들의 성명과 본관, 연령, 직역, 가족관계, 조상에 대한 기록이 풍부하게 실려 있다. 따라서 호적자료를 활용하여 동성촌락을 연구한다면 동성촌락 내 동성 집단의 존재를 다른 성관 집단과 비교하거나⁴⁾, 이전에는 자료가 부족해 다루지 못

3)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택규, 1979 《氏族部落의 構造研究》 일조각; 이해준, 1985 〈朝鮮後期長興傍村의 村落文書—湖南地方한 同族部落의 組織—〉 《邊太燮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김필동, 2000 〈한국 종족(宗族) 집단의 형성과 변동〉 《농촌사회》 10, 261~292쪽; 양보경, 1980 〈半月面四里同族部落에 대한 研究〉 《地理學研究》 7, 한국지리교육학회, 29~52쪽, 최협, 1983 〈同族部落과 非同族部落의 한 比較-전남 광양지역 사회인류학적 조사보고서〉 《호남문화연구》 13, 203~217쪽; 김경옥, 2003 〈조선후기 동성마을의 형성배경과 사족들의 향촌활동-전라도 영암 영보리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6(2), 역사문화학회, 7~47쪽; 김미영, 2008 〈동성마을 정착과정에 나타난 친족이념의 변천양상-안동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실천민속학연구》 11, 실천민속학회, 165~195; 정만조, 2004 《集姓村과 土族》 서울:국민대학교 출판부; 박도식, 2013 《강릉의 동족마을》, 서울:채륜

4) 이와 관련한 시론적 연구로는 1970년대에 김숙희, 박용숙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다룬 연구이기보다는 호적자료를 활용한 사회구조 규명의

했던 평민 동성촌락에 대한 연구가 가능해진다. 기존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연구하지 못했던 동성촌락과 관련한 문제를 다루거나 새로운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⁵⁾

호적대장을 활용한 동성촌락 연구로는 권내현과 김경란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권내현은 《慶尙道丹城縣戶籍大帳》을 통해 동성촌락이 양반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양반이 아닌 평민도 동일 성관 집거를 통해 촌락 내부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여 동성촌락을 이루었다는 것을 밝혔다.⁶⁾ 기존 연구 방식으로는 알기 어려웠던 조선시대 평민 동성촌락에 대한 존재가 드러난 것이다. 김경란은 1930년대 대구에서 동성촌락이 많았던 몇 지역을 뽑아 《慶尙道大丘府戶籍大帳》을 이용하여 동성촌락 형성 시기를 검토하였다. 호적을 활용하여 동성촌락 형성 시기를 확인한 결과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에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었다.⁷⁾ 이는 동성촌락의 형성을 18세기 이후로 상정했던 기존 연구에 비해 더 늦은 시기 동성촌락들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두 동성촌락 연구를 비롯한 일반적인 동성촌락 연구는 동성동본

일환으로 동성촌락의 연구를 한 것이다. 김숙희 외, 1972 〈18세기 농촌의 사회구조 경상도 단성현의 경우〉 《역사와 세계》 3, 효원사학회, 35~60쪽.

- 5) 정진영, 2007 〈역사인구학 자료로서의 호적대장 이용을 위한 기초 연구-《대구 부호적대장》과 촌락문서의 비교검토〉 《大東文化研究》 59,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363~401쪽; 2000 〈18세기 호적대장 ‘戶口’기록의 검토-「族譜」·「洞案」類와의 비교〉 《韓國中世史論叢-李樹健教授停年紀念》 論叢刊行委員會, 735~768쪽; 손병규, 2018 〈戶籍과 族譜의 자료적 특성과 연구방법-17C~20C 초 丹城地域 培養洞李氏들을 추적하며〉 《大東文化研究》 10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권내현, 2004 〈조선후기 호적과 족보를 통한 동성촌락의 복원〉 《大東文化研究》 47,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6 〈조선후기 동성촌락 구성원의 통혼 양상-단성현 신등면 안동권씨 사례〉 《한국사연구》 132, 한국사연구회, 109~135쪽; 김건태, 2014 〈조선후기 호구정책과 문중형성의 관계-제주도 대정현 하모리 사례〉 《한국문화》 67, 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 3~33쪽; 김경란, 2017 〈조선후기 평민 동성마을 형성과 특징-大丘府 解北村 廣里의 丹陽 禹氏 사례〉 《사학연구》 128, 한국사학회, 271~308쪽.
- 6) 권내현, 2010, 〈조선후기 평민 동성촌락의 성장〉, 《민족문화연구》 5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8쪽.
- 7) 김경란, 2016. 〈조선후기 대구부 同性마을 형성시기에 대한 검토-『경상도대구 부호적대장』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123, 한국사학회, 93~131쪽.

인 호의 집거를 근거로 동성촌락의 존재를 확인했다. 그러나 조선후기 사람들은 본관을 바꾸는 경우가 비교적 잦고 최근 姓貫이나 친족집단 관련한 연구에서 같은 성관을 갖더라도 동일한 부계 조상을 공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⁸⁾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동성동본만을 지표로 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동성동본인 사람들의 혈연관계를 확인하여 이들이 같은 부계 조상의 자손임을 확인하는 것이 동성촌락 개념에 더 명확하게 부합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慶尙道大丘府守東面戶籍大帳》(이하 《수동면 호적》으로 칭한다.)에서 동성동본인 사람들의 혈연관계를 분석하여 동일한 부계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집거하는 동성촌락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대구 수동면 지역은 1930년대 전국적인 촌락 조사를 실시했던 켄쇼 에이스케(善生永助)가 ‘著名同族部落’으로 지목한 지산동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며⁹⁾ 18~19세기 식년별 호적자료가 시기적으로 잘 남아 있어 동성촌락 형성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현재까지 진행된 동성촌락에 대한 연구에서 동성촌락의 개념 정의는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다.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다루었던 동성촌락에 대한 개념을 먼저 살펴보았다. 켄쇼 에이스케의 경우 전국적인 마을 조사를 하며 수치로 동성촌락을 정의해보았다. 켄쇼 에이스케는 개별 촌락에서 동성동본인 호가 10%를 차지할 경우 동족촌락으로, 50호 이상은 저명 동족촌락으로 분류하였다.¹⁰⁾ 최재석은 ‘한 마을 안에 존재하는 비교적 다수의 동성동본의 사람들이 조직체를 갖거나 적어도 집단적 행동을 취하는 마을’¹¹⁾이라 정의 내렸고 정진영은 ‘동성

8) 김경란에 따르면 무성층의 상당수가 성관을 획득하는데 있어 특정 몇 개의 성관으로 선호하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는 같은 조상을 공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동성동본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김경란, 2013, 〈조선후기 無姓層의 존재형태와 획득 경로〉 《사학연구》 한국사학회, 247-283쪽; 2010, 〈조선후기 土姓의 변화와 존립형태-慶尙道 丹城縣을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57 379~409쪽

9) 善生永助, 1933 《朝鮮の聚落》 後篇 462쪽.

10) 전중환, 2014 〈『朝鮮の聚落』(1935)을 통해 본 한국 宗族村落의 기원과 분포〉 《문화역사지리》 26(2), 한국문화역사지리연구회, 66쪽.

동본의 한두 성씨 집단이 혈연적으로 결합된 친족 조직을 통해 촌락의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을 지칭한다.’고 했다.¹²⁾ 이해준은 ‘대체로 하나의 지배적인 동성동본 집단이 특정 마을의 주도권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거주하여온 마을’을 동성촌락이라 보았다.¹³⁾ 조금씩 정의가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동성동본의 사람들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마을’을 동성촌락이라 정의내린 것을 알 수 있다.

‘지배적인 영향력’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수적인 우세를 통해 해당 리에서 동성동본인 戶가 얼마나 집거 했는지, 집거한 것이 전체 리에서 얼마만큼 차지하는지, 얼마 동안 그 세를 유지하였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그다음 동성동본의 집거가 확인되는 리에서 수동면 호적을 통해 부계혈연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수동면 내에서 동성촌락을 알아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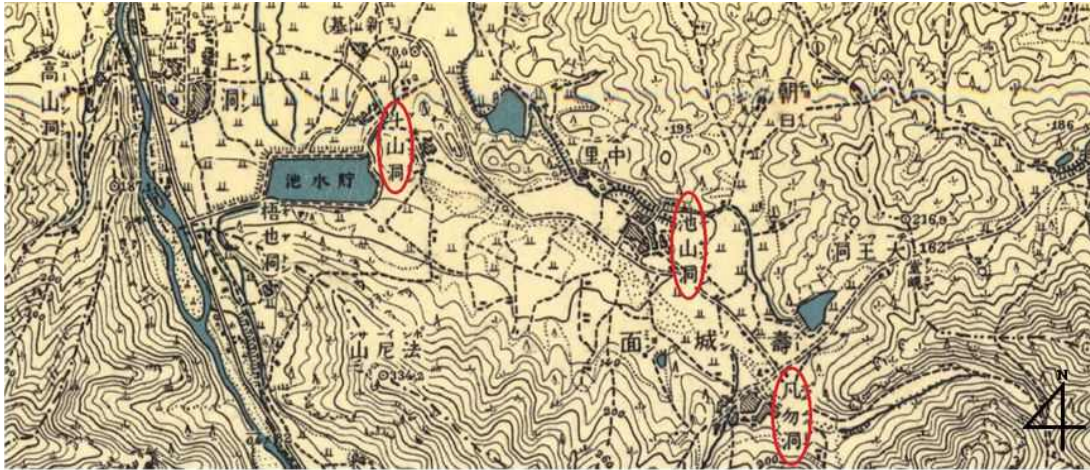
본고에서는 수동면 각 리에서 동성동본의 집거와 부계혈연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동성촌락을 찾은 다음, 동성촌락의 형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호적 자료의 시계열성을 이용하여 동성촌락 형성 시기에 대해 알아보고 호적의 四祖와 가족관계 기록을 통해 동성집단의 가계를 복원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동성촌락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했던 동성집단의 성격과 형성 과정을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수동면 호적》을 활용하여 동성집단의 가계를 19세기 전체로 확장하고 동성촌락 내 호 분석을 통해 해당 동성촌락이 가지는 특징에 대해 분석하고 그 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11) 최재석, 1975 《한국농촌사회연구》, 일지사, 197쪽.

12) 정진영, 1998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305~306쪽.

13) 이해준, 2002 《조선시기 촌락사회사》, 285쪽.

一. 수동면 촌락 내 동성촌락 검토



<그림 1> 대구부 수동면 지형도

자료: 《朝鮮五萬分一地形圖-達城郡》, 1920~30년대 측량

수동면은 오늘날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지산동, 두산동 일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조선시대에는 대구 감영에서 20리 떨어진 곳에 있어 비교적 감영과 가까웠다.¹⁴⁾ <그림 1>은 대구부 수동면 지역 지도이다. 두산동에 보이는 수성 저수지는 1920년대 일본인 미즈사키 린타로(水崎林太郎)에 의해 조성된 못으로, 이 못이 지도에 나타는 것으로 보아 1920년대~30년대 측량한 지도로 보인다. 시간적 차이는 나지만 수동면의 지형을 확인하기에는 어렵지 않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동면은 북동쪽으로는 무학산이, 남서쪽에는 범이산, 동남쪽으로는 용지봉이 있어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기다란 지형이다. 위 그림에서 점이 찍힌 부분은 개울로, 두산동과, 지산동, 범물동을 관통하는 시내가 흐르고 있다.¹⁵⁾

14) 《大邱府邑誌》, 1899, 대구부 읍지에 따르면 대구부에 속한 33개면 중 읍치와 30리 밖에 위치한 면은 19개면(解北村, 解西村, 上守西, 下守南, 河北, 河東, 花縣內, 月背, 仁興, 河南, 上守南, 河西, 玉浦, 法化, 省平谷, 角北, 角縣內, 角二同, 角初同)이었다.

15) 1911년 11월에 측량한 지적도(《大丘府達城君壽城面凡勿原圖》, 《大丘府達城君壽城面池山原圖》, 《大丘府達城君壽城面斗山原圖》)에는 범물동에서 지산동, 두산동으로 흘러내려가는 시내(川)를 확인할 수 있다.

수성 저수지 자리는 조선시대에는 논밭이었다.

동성촌락 분석에 활용한 《수동면 호적》은 1714년부터 1876년까지 총 20개의 식년 중에서 10개 식년이다.¹⁶⁾ 호적에서 里별로 동성동본 호의 집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동면 호적》에 등장하는 모든 남성 주호에게 성과 본관 별로 성관 ID를 부여하여 《수동면 호적》내 동성동본인 주호는 같은 ID를 가지도록 했다. 예를 들어 1876년 《수동면 호적》 지산리 3통 1호의 최일학과 향덕리 7통 4호 최인곤은 모두 영천 최씨로 같은 성관 ID를 가진다. 성관 ID는 동일한 성관으로 판단되는 모든 식년의 사람에게 동일하게 부여한다. 호 내 구성원은 주호의 성관 ID를 따른다. 남편이 사망하여 부인이 호를 계승하는 寡婦·寡女 호는 남편의 성관 ID를 따른다.

한편 호적에서는 본관에 사용하는 지역명을 하나로 고정하지 않고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과거 식년과 비교할 때 명확하게 동일인물이거나 분명한 부계 혈연관계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본관의 표기가 일정하지 않고 해당 지역의 비슷한 지역명이나 옛 지역명을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성관이 경주 김씨인 사람이 경주와 월성을 동시에 본관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본관의 표기를 명확하게 고정하지 않고 사용했던 것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경주와 월성 외에도 영천과 영양, 성주와 벽진, 전주와 완산, 안동과 일직과 같이 자주 짝지어 본관을 혼용하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본관 표기는 다르더라도 동일한 성관 ID를 주었다.¹⁷⁾

동성동본인 호에는 성관 ID를 부여했다면 호적에 기재된 개별 사람에게는 별도로 개인 ID를 주었다. 개인에게 ID를 부여한 것은 호적에 등장

16) 분석 대상 식년은 1714(肅宗 40 甲午式), 1738(英祖 14 戊午式), 1747(英祖 23 丁卯式), 1768(英祖 44 戊子), 1789(正祖 13 己酉式), 1804(純祖 4 甲子式), 1825(純祖 25 乙酉式), 1846(憲宗 12 丙午式), 1858(哲宗 9 戊午式), 1876(高宗 13 丙子式)이다.

17) 두 가지 지역명을 본관으로 표기한 성관은 창원·능주 구씨/ 경주·월성 김씨/ 영해·영양 남씨/ 대구·달성 배씨/ 대구·달성 서씨/ 경주·월성 이씨/ 성주·벽진 이씨/ 일직·안동 손씨/ 전주·완산 최씨/ 영천·영양 최씨/ 경주·월성 최씨이다.

하는 사람들의 혈연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호적에 등재되는 사람들의 성명, 연령, 간지, 호 내 인물들과의 관계, 四祖 등을 고려하여 과거 식년과 동일인물로 판단되는 사람은 기존에 부여받은 개인 ID를 그대로 유지하고 처음 나타나는 사람은 새로운 ID를 부여받는다. 1714년부터 1876년까지 《수동면 호적》에서 성관 ID와 개인 ID를 부여하는 작업을 통해 총 16,471명과 2,889호를 분석한 결과 18~19세기에는 총 147개 성관과 1,1842명의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동면에서 동성촌락을 찾는 작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관 ID를 활용하여 1876년 각 리에서 동성동본인 호의 집거를 확인한다. 그다음 동성동본 호의 집거가 강하게 나타나는 리에서 얼마나 집거가 지속되었는지 알아본다. 특정 리에서 집거가 뚜렷하며 그 양상이 지속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마지막으로 동성동본 호 사이의 부계 혈연관계를 확인한다. 동성동본인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전혀 부계 혈연적 연관성을 가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혈연적인 연관성 없는 촌락 내 동성동본의 집거는 동성촌락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동성동본에서 더 나아가 실제로 동성동본인 사람들의 혈연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수동면 내 동성촌락을 검토할 때 ‘촌락’은 《수동면 호적》의 리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18~19세기, 특히 19세기 이후 조선후기 리 혹은 동의 편제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¹⁸⁾ 만약 수동면 내 리 편제에 변화가 있었다면 동성촌락을 확인할 때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기존 리의 폐합이나 병합, 분할, 리 신설이 있을 경우 동성촌락을 검토하는 통계에도 반영하여 동성집단 호의 변화나 지속성을 살펴 봐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관과 혈연분석을 통해 동성촌락을 알아보기

18) 18~19세기 조선 향촌에서는 기존 하나의 동이나 리가 두 개 이상으로 나뉘는 ‘分洞’이 일어났다. 지역별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분동의 원인은 부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김인걸, 1984, 〈조선후기 鄉村社會統制의 위기-洞契의 성격 변화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58, 97쪽~143쪽; 정진영, 1976년, 앞 책, 461~521쪽; 1993, 〈조선후기 의 구조와 ‘分洞’〉 《국사관논총》 47, 국사편찬위원회, 9쪽; 박현순, 2002, 〈18세기 丹城縣의 面里 편제〉 《大東文化研究》 40, 337쪽;

에 앞서 18~19세기 《수동면 호적》에서 리의 편제 변화를 알아보았다.

<표 1> 1714년~1876년 《수동면 호적》 리 편제 변화

연도	里名															
1714	지내리 (池内里)	이산리 (梨山里)	향덕리 (向德里)	범어리 (凡於里)	이전리 (泥田里)	신리 (新里)	두산리 (斗山里)	신전리 (薪田里)								
1738	이산리(梨山里)			범물리 (凡勿里)				신덕리 (新德里)	X	신리(薪里)						
1741	이산리(利山里)										신리(薪里)					
1747																
1768	이산리(梨山里)											신전리 (薪田里)				
1774																
1789	지산리 (池山里)														두산리 (斗山里)	신전리 (薪田里)
1792																
1795																
1804																
1816																
1822																
1825																
1846																
1852																
1858																
1867																
1870																
1876																

<표 1> 은 1714년부터 1876년까지 《수동면 호적》의 리 편제 변화를 시기별로 정리한 것이다. 1714년 8개 리(池內里, 梨山里, 向德里, 凡於里, 泥田里, 新里, 斗山里, 薪田里)로 시작한 수동면은 1748년이 되자 7개 리가 된다. 지내리와 이산리가 하나로 통합되었기 때문이다.¹⁹⁾ 이후 1747

년이 되면 신리(新里)가 없어지면서 리의 수는 6개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1768년 다시 신덕리가 신설되면서 수동면은 7개 리로 고정된다.²⁰⁾ 수동면에서는 1768년 이후 리의 이름에는 변화가 있었지만²¹⁾ 리의 수는 7개로 유지된다.²²⁾ 1804년이 되면 리 이름도 고정되어 1876년까지 지산리(池山里), 향덕리(向德里), 범물리(凡勿里), 이전리(泥田里), 신덕리(新德里), 두산리(斗山里), 두천리(斗川里)가 된다. 수동면은 18세기 초~18세기 중반까지 리의 병합과 폐쇄 등 변동 사항이 있었으나 19세기가 되면서 7개 리로 안정적인 리 편제를 유지했다.²³⁾

18~19세기 수동면 리 편제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18세기 변동기를 거쳐 19세기 안정기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18세기까지 리의 폐합·신설과 리 명칭의 변동이 있었지만 19세기에는 리 명칭과 리의 편제 모두 변동 사항 없이 유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세기 성관 분석은 1804년 7개 리(池山里, 向德里, 凡勿里, 泥田里, 新德里, 斗山里, 斗川里)를 기준으로

19) 1714년 《수동면 호적》 지내리 호 10호 중 1738년에 존속한 호는 7개 호이다. 그중 6개 호가 이산리에 있었고 1호는 향덕리에 있다. 이를 통해 지내리와 이산리가 통합되었다고 보았다.

20) 《수동면 호적》 1768년 식년 신덕리 52호 중, 신리가 폐지되기 전인 1741년에도 찾을 수 있는 호는 총 33호이다. 33호 가운데 신리에 있었던 호는 19호, 이산리 5호, 향덕리 7호, 이전리 1호, 두산리 1호이다. 1768년 신설된 신덕리의 호 중 상당수가 1741년 신리 출신이었다. 이를 근거로 1768년 신덕리가 폐지되었던 1741년 신리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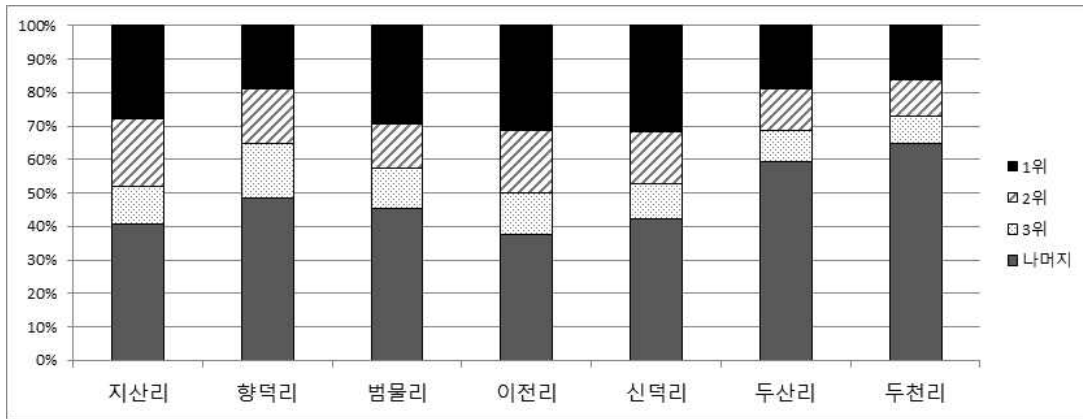
21) 池山里의 경우 지산리와 이산리가 통합되면서 변경되었다. 池內里의 ‘池’와 梨山里의 ‘山’를 한 글자씩 따온 것으로 보인다. 凡於里와 凡勿里는 한자 표기가 거의 비슷하다. 이웃한 면인 守北面에 똑같은 이름의 리가 있는 것으로 볼 때 호적 작성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한다.

22) 斗川里의 경우 1804년 두천리에 기재된 25호 중 20호를 이전 식년인 1795년 薪田里 호적에서 찾을 수 있어 신전리를 두천리로 리 이름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했다.

23) 《大丘府邑誌》, 1899, 守東面 在官東二十里 屬洞七 雉山里 向德里 凡勿里 泥田里 新德里 斗山里 斗川里

1899년 대구부 읍지에 따르면 수동면 제1리였던 池山里가 雉山里로 나타난다. 1907년 《大丘府邑誌》에서도 지산리는 치산리로 기록되어있다. 치산리는 지산리의 산세가 마치 뒷산의 곡식을 고르는 농기구인 키와 같이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옛날부터 지산리와 치산리를 함께 리 이름으로 사용했다. 택민 국학연구원, 2009, 《대구지명유래총람》 제8장 수성구

하되, 리 별 특정 성관 호의 지속성은 리 편제를 반영하여 호수를 확인할 것이다.



<그림 2> 1876년 수동면 리 별 성관 호 비율

<그림 2>는 1876년 수동면 7개 리에서 호가 많은 성관을 1·2·3위까지 뽑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범례에서 나머지는 1·2·3위를 제외한 나머지 성관의 호수를 모두 합친 비율이다. 그래프를 보면 상위 3개 성관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위 3개 성관의 비율이 전체 호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리는 두산리와 두천리를 제외한 5개 리(지산리, 향덕리, 범물리, 이전리, 신덕리)이다. 특히 지산리와 이전리의 경우 상위 3개 성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60%에 육박한다. 특정 성관이 수적으로 우세한 것이다. 다섯 개 리에서 성관의 집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다시 이들 리의 상위 3개 성관과 호수를 정리하여 표로 작성해 보았다.

<표 2> 1876년 5개 리 별 성관 호수²⁴⁾

지산리		향덕리		범물리		이전리		신덕리	
姓本	호수	姓本	호수	姓本	호수	姓本	호수	姓本	호수
중화양	22	경주김	7	밀양박	22	전주최	5	김해허	6
경주김	16	경주이	6	경주최	10	경주최	3	밀양박	3
밀양박	9	밀양박	6	김해김	9	밀양박	2	영천최	2
전체	79	전체	37	전체	75	전체	16	전체	19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3개 성관의 비중이 50%를 넘는 리이더라도 호수의 차이가 리 별로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산리와 범물리의 경우 가장 많은 1위 성관이 20호 넘게 있었다. 지산리의 중화 양씨와 범물리 밀양 박씨는 각각 22호였다. 특히 범물리 밀양 박씨는 차상위 성관인 경주 최씨 호 보다 두 배 넘게 많았다. 나머지 향덕리·이전리·신덕리는 10호를 채 넘지 못한다. 리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적을 수로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것이다. 그러나 적은 호수이더라도 리 전체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했기 때문에 리에서 수적인 우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향덕리의 경우 다른 4개 리에 비해 1위 성관의 호수가 리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이 19%에 불과하다. 다른 4개 리의 1위 성관은 모두 20%를 상회하는 수치로 향덕리는 다른 마을에 비해 수적 우세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5개 리에서 다수를 차지했던 성관이 얼마나 오랫동안 수적인 우세를 지속해 나갔는지 확인해 볼 것이다. 특정 성관이 1876년에 수적

24) 앞서 서술했듯이 호적의 몇몇 성관은 본관에 사용하는 지역명을 하나로 고정하지 않고 혼용하는 경우가 있다. 〈표 2〉 이후 모든 성관 관련 분석에서는 하나의 지역으로 본관 표기를 통일했다. 본관 명칭을 통일한 성관은 경주/월성 김→경주 김, 경주/월성 이→경주 이, 경주/월성 최→경주 최, 전주/완산 최→전주 최로 4개 성관이다.

으로 우세했을 수 있지만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표 3>는 1876년 다섯 개 리에서 가장 호가 많았던 1위 성관이 얼마나 오랫동안 1위를 유지했는지 정리한 표이다.

<표 3> 5개 리 1위 성관 지속 기간

里名	성관	지속 기간
지산리 ²⁵⁾	중화 양	1825~1876
향덕리	경주 김	1876
범물리	밀양 박	1738~1876
이전리	전주 최	1876
신덕리	김해 허	1846~1876

리에 따라 1876년 가장 많았던 성관이 수적인 우세를 이전부터 지속한 곳도 있지만, 아닌 곳도 있다. 지산리·범물리·신덕리에서는 특정 성관이 수적인 우세를 적게는 수십 년에서 백 년 넘게 지속해 왔다. 가장 오랫동안 1위 성관을 지속해온 마을은 범물리이다. 밀양 박씨는 1738년부터 범물리에서 가장 호수가 많은 성관으로 1876년까지 분석 식년에서 한 번도 빠짐 없이 140여 년간 1위를 유지했다. 그다음은 지산리이다. 지산리 중화 양씨는 1825년부터 지산리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성관이 되어 1876년까지 50년간 이어졌다. 가장 지속 시기가 짧았던 리는 신덕리이다. 신덕리 김해 허씨는 1846년부터 1위 성관이 되어 30년간 이어나갔다. 향덕리와 이전리는 1876년 당대에 한정적으로 경주 김씨와 전주 최씨가 우세한 성관이었다. 그 이전에 향덕리의 경우 여러 성관이 우세했었고 이전리는 영천 최씨가 많았지만 19세기 중반이 되면서 쇠락했다.²⁶⁾

이상으로 《수동면 호적》을 통해 수동면 7개 리의 호와 성관을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수동면 7개 리 중 지산리와 범물리에서 특정 성관의

25) <표 1>에서 확인했듯이 지산리는 1714년 지내리와 이산리를 통합하여 형성된 촌락이다. 지내리와 이산리가 통합하여 이산리가 된 뒤 1789년에 지산리로 리 명칭을 변경했다. 따라서 <표 3>에서 지산리 중화 양씨 성관의 호수 우세 지속을 확인할 때 1714년은 지내리와 이산리의 호수를 합하여 알아보았으며, 1789년 지산리로 이름 변경이 있기 전 시기는 이산리의 호수와 성관을 확인했다.

26) 영천 최씨는 1768년부터 1825년까지 이전리에서 가장 많은 성관이었다.

집거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지산리 중화 양씨, 범물리 밀양 박씨는 리 내 다른 성관보다 많은 수의 호가 거주했었고 그러한 집거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적어도 수십 년에 걸쳐 유지되었다. 《수동면 호적》에 따르면 중화 양씨는 1825년부터 지산리에서 호수가 가장 많았고 밀양 박씨는 1738년부터 범물리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성관이였다. 중화 양씨와 밀양 박씨 모두 1876년 당시 지산리와 범물리 전체 호수의 1/4에 해당하는 호수가 호적에 기재되었으며 리 내에서 동성동본인 호가 상당 기간 동안 집거하며 살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동면 호적》에서 리별로 동성동본 호를 분석한 결과 19세기 지산리에는 中和 楊氏, 범물리에는 密陽 朴氏가 집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지산리 중화 양씨와 범물리 밀양 박씨의 혈연관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1) 지산리 中和 楊氏

<표 4> 1876년 지산리 중화 양씨 혈연관계²⁷⁾

통-호	주 호 성명	가계(父부터)	공통조상
1-4	상업	종일-지곤-대한-달화-시진-경림	달화-시진-경림
3-2	현쾌	섭일-재춘-대직-달화-시진-경림	
4-3	순일	지곤-대한-달화-시진-경림	
5-5	현악	홍일-지관-대한-달화-시진-경림	
6-3	현간	학일-재환-대인-달화-시진-경림	
6-4	민발	헌형-한일-재춘-대직-달화-시진-경림	
7-5	진발	헌형-한일-재춘-대직-달화-시진-경림	
8-1	헌방	해일-지태-대한-달화-시진-경림	

8-2	현익	홍일-지관-대한-달화-시진-경림	
8-3	경발	헌표-하일-지복-대한-달화-시진-경림	
9-3	헌강	동일-재운-대인-달화-시진-경림	
10-3	헌문	학일-재환-대인-달화-시진-경림	
11-2	헌우	진일-재환-대인-달화-시진-경림	
11-4	한발	헌기-부일-재환-대인-달화-시진-경림	
12-2	헌주	부일-재환-대인-달화-시진-경림	
12-4	헌묵	호일-지태-대한-달화-시진-경림	
15-1	사일	지태-대한-달화-시진-경림	
15-5	헌운	원일-지태-대한-달화-시진-경림	
16-1	선발	헌옥-도일-재춘-대직-달화-시진-경림	
16-4	헌주	하일-지복-대한-달화-시진-경림	
10-1	무근	필열-수영-심-재중-대근-선화-시즙-경림	선화-시즙-경림
10-5	필선	수립-발-재립-대신-선화-시즙-경림	

〈표 4〉는 《수동면 호적》에서 중화 양씨 호의 四祖기록을 통해 조상을 추적하여 1876년에 있었던 지산리 중화 양씨 호의 혈연관계를 정리하여 표로 나타낸 것이다. 지산리 중화 양씨 22호는 모두 景濂의 자손인 것으로 나타났다. 22호가 모두 혈연관계에 있는 것이다. 가장 가깝게는 6통 4호 양민발, 7통 5호 양진발과 같이 형제 관계에서부터 10통 1호 양무근과 10통 5호 양필선과 같이 촌수가 최대 15촌에 이르는 친족관계의 사람들이 1876년 지산리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1876년 지산리의 중화 양씨는 모두 경림의 후손들이었지만, 이들을 좀

27) 〈표 3〉과 후술할 〈표 4〉는 김경란, 2017, 〈조선후기 평민 同姓마을의 형성과 특징-大丘府 解北村 廣里의 丹陽 禹氏 사례〉 《사학연구》 128, 294쪽 〈표 7〉 형식을 참고하여 작성했다.

더 세분화하여 분류하면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 景濂-時震-達和(이하 달화 계열로 칭한다.)에 이르는 계열과 景濂-時楫-善和(이하 선화 계열로 칭한다.)로 이어지는 계열이다. 경림에게는 시진과 시즙 두 아들이 있었다. 달화와 선화는 각각 시진과 시즙의 아들로 1876년 지산리 중화 양씨 주호들은 모두 달화와 선화의 후손들이었다. 계열에 따라 호수를 확인 하면 달화 계열 20호, 선화 계열 2호로 달화 계열이 선화 계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표 5> 1876년 지산리 중화 양씨 가계 정리

계열	시작 식년*	지산리 거주 기간	移去 이력
달화	1738	138년	1738: 지산리 거주 1825: 향덕리 분호 1846: 두천리 분호
선화	1714	72년	1714년: 향덕리 거주, 1768년: 신덕리 분호 1804년: 지산리 분호

* 시작 식년은 해당 계열들의 혈연을 추적하여 《수동면 호적》에서 최초로 나타난 식년이다.

다음으로 1876년 지산리 중화 양씨를 계열에 따라 《수동면 호적》에 등장한 시기, 지산리 거주 기간, 이거 이력을 살펴보았다. 달화와 선화 계열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지산리에 거주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달화 계열은 1738년 《수동면 호적》에 지산리 16통 4호의 주호로 최초로 등장하여 이후 달화의 후손들이 1876년까지 지산리에서 이어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달화의 후손들 중 일부는 수동면 내 다른 리에서 나타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달화 계열은 지산리에 있었다. 선화의 경우 1714년 《수동면 호적》에서 향덕리 1통 5호의 주호였다. 선화 계열이 지산리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804년부터이다. 향덕리에 있었던 선화 계열 호가 지산리로 이거한 것이다. 따라서 선화 계열이 지산리에 거주한 기간은 72년으로 볼 수 있다.

2) 범물리 密陽 朴氏

<표 6> 1876년 범물리 밀양 박씨 혈연관계

통-호	주호	가계(父부터)	공통조상
3-2	성철	인석-삭불-악이	악이
1-3	계봉	동옥-성대-신정-일상-잔립	잔립
1-4	한석	수철-계득-성우-영준-신걸-일원-잔립	
3-5	홍섭	동춘-성대-신정-일상-잔립	
4-2	치권	성휘-문갑-신태-일상-잔립	
4-4	기림	동철-성대-신정-일상-잔립	
5-2	경호	치득-성권-문세-신태-일상-잔립	
5-3	진호	치득-성권-문세-신태-일상-잔립	
6-2	계안	성흥-영준-신걸-일원-잔립	
8-3	종일	계은-유성-영화-신걸-일원-잔립	
8-5	천옥	명업-성복-영준-신걸-일원-잔립	
12-4	인철	경호-치득-성권-문세-신태-일상-잔립	
13-1	손권	주석-광운-춘성-영화-신걸-일원-잔립	
14-2	수원	윤득-성항-영세-신걸-일원-잔립	
15-2	기권	동철-성대-신정-일상-잔립	
6-3	치달	유천-선화-태걸	태걸
10-1	연성	선옥-태걸	
11-2	용학	은국-유천-선화-태걸	
14-3	연득	선옥-태걸	
4-3	유복	일중-동석-선보	선보
11-1	윤권	말동-선보	
1-2	학언	종운-고검-악신	악신

<표 6> 는 <표 4> 과 같이 호적에서 밀양 박씨 호의 四祖기록을 추적하여 1876년 범물리 밀양 박씨 호의 혈연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지산리 중화 양씨의 경우 지산리에 있는 모든 중화 양씨들이 혈연관계에 있었던 것과 달리, 범물리 밀양 박씨는 혈연관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들을 혈연관계에 따라 분류하면 악이, 잔립, 태걸, 선보, 악신 계열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잔립 계열이 22호 중 14호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태결 계열이 4호, 선보 계열이 2호, 악신·악이 계열은 각각 1호씩 있었다. 밀양 박씨 호들은 동성동본으로 범물리에 살고 있었지만 혈연적으로 전혀 연관성이 없는 호가 있었던 것이다.

<표 7> 1876년 범물리 밀양 박씨 가계 정리

계열	시작 식년*	범물리 거주 기간	移去 이력
잔립	1714	162년	
태결	1714	162년	
선보	1789	87년	
악이	1714	18년	이산리 거주, 1858년 범물리로 분호
악신	1789	30년	이전리 거주, 1846년 범물리로 분호

* 시작 식년은 해당 계열들의 혈연을 추적하여 《수동면 호적》에서 최초로 나타난 식년이다.

이번에는 1876년 범물리 밀양 박씨들을 계열에 따라 《수동면 호적》에 최초로 나타난 시기와 범물리 거주 기간, 이거 이력들을 살펴보았다. 잔립 계열은 1714년 《수동면 호적》을 시작으로 범물리에서 160여 년간 지속 해왔다. 1714년부터 1876년까지 잔립 계열은 범물리에서만 나타날 뿐 수동면의 다른 리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태결 계열 역시 잔립 계열 마찬가지로 1714년부터 호적에 등장하여 1876년까지 오직 범물리에서만 보이는 계열이었다. 선보 계열은 잔립과 태결 계열보다 70년 뒤 시기인 1789년에 처음 나타나 약 90년간 범물리에 존속했다. 악이 계열은 1714년에 처음 《수동면 호적》에서 보이긴 하지만 범물리에서 거주한 것은 불과 18년밖에 되지 않았다. 이산리에서 시작한 악이 계열은 이후 이전리, 범물리, 두산리에서 나타났고 1858년부터 범물리에서 살았다. 악신 계열도 마찬가지로 1789년 《수동면 호적》 이전리에서 나타나 범물리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30년 정도였다.

이상으로 수동면 내 7개 리를 대상으로 동성촌락을 검토해보았다. 18

~19세기 《수동면 호적》에 따르면 동성동본의 집거와 지속이 명확한 리는 지산리와 범물리였다. 지산리에는 중화 양씨, 범물리에는 밀양 박씨가 상당한 기간 동안 집거하고 있었던 것이다. 동성동본에서 좀 더 명확한 부계 혈연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1876년 《수동면 호적》을 이용하여 지산리 중화 양씨와 범물리 밀양 박씨 주호의 조상들을 추적했다. 지산리 중화 양씨의 경우 모든 주호들이 경림의 후손으로 부계 혈연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범물리 밀양 박씨는 모든 주호들이 혈연관계로 이어지지 않아 5개의 계열로 나뉘었다. 동성동본의 집거와 부계 혈연관계 분석을 종합한다면, 수동면에서 동성촌락으로 분류할 수 있는 리는 바로 지산리이다.

二. 지산리 庶系 동성촌락

1. 嫡系 이탈과 동성촌락의 형성

중화 양씨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은 15세기 문신인 楊熙止이다. 양희지는 문과 급제 후 성종에게 ‘稀枝’라는 이름을 하사 받고²⁸⁾ 1475년부터 賜暇讀書를 했다.²⁹⁾ 관직은 대사간을 거쳐 한성부우윤에 이르렀다. 1768년, 1899년 간행한 《大丘府邑誌》³⁰⁾와 정조 연간 영남출신 문신들의 생애와 시문·행장 등을 기록한 《嶺南人物考》³¹⁾에도 등장하는 대표적인 대구 출신 인물 바로 양희지이다. 중화 양씨가 대구에서 세거한 시기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양희지가 대구 출신³²⁾이고 그의 차남 楊拜善³³⁾ 역시 대구에서 살았다³⁴⁾는 기록을 볼 때 중화 양씨가 적어도 15세기부터는 대구에 세거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희지의 자손들이 구체적으로 대구 어느 지역에 세거했는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

지산리 중화 양씨에 대한 기록은 1930년대 조선의 촌락을 전국적으로 조사했던 젠쇼 에이스케의 《朝鮮の聚落》에서 나타난다. 젠쇼 에이스케는 조사 당시 지산리를 50호 이상의 저명동족촌락으로 분류하고 지산리 중화 양씨 동족촌락 발생 연대를 240년 전으로 보았다.³⁵⁾ 젠쇼 에이스케가 조사한 동성촌락 발생 연대는 입향조의 입향 시기였다.³⁶⁾ 즉 수동면

28) 《慶尙道大邱郡邑誌》1899, “楊稀枝 中和人 號大奉 名熙止 成廟朝入侍時 上命曰 楊貴稀枝 賜名稀枝 賜暇湖堂官 至大司憲 文章清白 載於本朝名臣錄”

29) 《成宗實錄》권68, 성종 7년, 6월 14일 乙酉

30) 대구향토문화연구소, 1997 《국역 대구부읍지》, 대구광역시, 205쪽.

31) 《嶺南人物考》권9, 「大丘」

32) 《四佳文集》권5, 「送楊脩撰詩序」

33) 《大峯集》권3, 「墓碣陰記」 府君姓楊。諱熙止。字可行。釋褐初。成廟賜改名稀枝。字楨父。後更命從初名。本中和。享年六十六。甲子年二月初六日。以微疾終于邸。同年十月二十七日。葬州北含月山之陽。府君娶東府錄事李宗根之女。生二男二女。女長適習讀官曹福謙。生一男二女。皆幼。次男濟用監副奉事聞善。娶銀豐副正之女。時無后。次男進士拜善。

34) 《中宗實錄》권32, 중종 13년 3월 26일 乙丑

35) 善生永助, 1933 《朝鮮の聚落》後篇, 462쪽.

지산리에서 중화 양씨가 세거한 시점은 17세기 말, 1690년대가 될 것이다. 지산리 중화 양씨가 17세기 말에 지산리에서 세거하기 시작했다면, 이들이 동성촌락을 형성한 시기는 언제일까.

〈표 8〉 지산리 식년별 중화 양씨 및 주요 성관 호수 변화³⁷⁾

연도	전체 호수		중화 양		성주 이 홍계	경주 김 애남	경주 이 달남
	지내리	이산리	戶數	비중			
1714	10	67	4	5%	3	7	5
1738	92		5	5%	4	6	5
1747	112		5	4%	5	6	5
1768	55		4	7%	4	5	4
1789	55		4	7%	3	4	2
1804	55		5	9%	4	4	2
1825	59		8	14%	3	8	3
1846	75		16	21%	2	11	5
1858	77		18	23%	3	12	4
1876	79		22	28%	1	16	5

* 1714년은 지내리와 이산리가 아직 지산리로 통합되기 전이므로 따로 전체 호수를 구분하였다.

〈표 8〉은 1714년부터 1876년까지 지산리 전체 호수와 지산리 중화 양씨의 호수 변화를 함께 나타낸 것이다. 이 표는 중화 양씨 뿐만 아니라 지산리에서 유력한 다른 성관의 계열들의 호수 변화를 함께 정리하여 다른 계열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성관 계열은 1714년부터 1876년까지 160여 년간 존속하고 호수 규모가 상당한 계열이다.³⁸⁾ 중화 양씨

36) 입향조가 입향한 시기를 동성촌락 발생 연대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입향기부터 바로 동성촌락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입향 후 몇 대에 걸쳐 세거하며 해당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난 뒤에야 동성촌락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연구에서는 젠쇼 에이스케의 동성촌락 형성연대를 동성촌락 형성시기로 보지 않는다. 입향 시기와 동성촌락 형성 시기 관련한 논의는 정승모 1993 〈동성촌락의 형성배경〉 《정신문화연구》 16(4),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37) 〈표 6〉은 권내현, 2010, 〈조선후기 평민 동성촌락의 성장〉 《민족문화연구》 5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5쪽 〈표 1〉의 형식을 참고하여 만들었다.

의 지산리의 유력 성관이라 할 수 있는 성관 계열은 다음과 같다.

성주 이씨 홍계 계열은 1714년 지내리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1714년 지내리 10호 중 3호가 성주 이씨 홍계 계열이었다.³⁹⁾ 18세기 초 성주 이씨 홍계 계열의 주호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幼學직역을 가지고 있다.⁴⁰⁾ 특히 지내리 2통 4호 주호인 이만지는 《수동면 호적》에 따르면 34구의 노비를 소유했다. 수동면에서 두 번째로 많은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다.⁴¹⁾ 정리해보면 성주 홍계 계열은 상당한 경제력을 가진 높은 지위에 있었을 것이다.

경주 김씨 애남 계열은 1714년 이산리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1714년 7호였던 애남 계열은 주로 군역과 驛 관련 역을 지고 있었다.⁴²⁾ 조상들의 직역의 경우 正兵혹은 保人이었으며 嘉善大夫의 경우 納粟이나 冒稱 일것으로 보인다. 주호의 처 호칭을 살펴보면 대부분 召史였으며 신분이 婢⁴³⁾인 경우도 있었다.⁴⁴⁾ 주호와 조상의 직역, 처의 호칭을 모두 고려할

38) 유력 성관 계열은 중화 양씨 혈연관계 분석과 마찬가지로 지산리 내 모든 주호들의 四祖기록을 추적하여 부계 혈연 별로 정리하고 전체 시기 호수를 합산하여 호수가 많은 세 계열을 선정했다.

39) 1714년 《수동면 호적》 지내리 성주 이씨 홍계 계열 호: 이시평(1통 5호), 이만지(2통 4호), 이동필(2통 5호). 이 외에도 김재성(2통 1호)의 경우 김재성의 처가 성주 이씨가 홍계의 손녀이다. 김재성의 조상이나 친인척을 찾아본 결과 《수동면 호적》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김재성은 성주 이씨는 아니지만 성주 이씨와 관련된 호라 할 수 있다.

40) 1714년, 1738년에 나타난 성주 이씨 홍계 계열 호는 총 7호이다. 7호의 주호 중 幼學 직역자는 6명이다. 이들의 조상들은 《수동면 호적》에서 學生으로 기록하고 있다. 1명은 病廢로 나타난다(1714년 지내리 1통 4호 이시평). 이시평의 처 호칭이 召史이고 외조부가 老職인 점을 고려할 때, 이시평은 서자일 것이다.

41) 주호가 소유한 모든 노비를 호적에 올리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만지는 34구 이상의 노비를 소유했다고 볼 수 있다. 호적에서 노비 기재와 실제 반영에 관련한 연구는 손병규, 2004 〈17·18세기 호적대장의 私奴婢 기재실태〉 《고문서연구》 24, 9~10쪽을 참고.

42) 1714년 이산리: 김신철(3통 2호, 驛保), 김세점(4통 5호, 武學巡帶率), 김봉(6통 1호, 驛保巡牙兵), 김진국(8통 1호, 老除), 김진방(8통 4호, 巡別隊), 김정구(9통 3호, 水鐵匠人府軍官), 김여화(15통 5호, 府軍官), 김여삼(15통 6호, 凡於驛吏)

43) 호적에서 노비가 아닌 여성은 성관과 호칭만을 기재하고 노비 여성의 경우 이름

때, 애남 계열은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 해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경주 이씨 달남 계열은 1714년 《수동면 호적》을 보면 이산리에 5호가 거주했던 것으로 보인다.⁴⁵⁾ 1714년 달남계열 주호들의 직역을 살펴보면 通政大夫, 巡別隊, 府將官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의 조상들의 직역을 살펴보면 대대로 私奴였다. 이들 주호의 처의 호칭도 ‘召史’이거나 신분이 私婢인 것으로 나타난다. 본래 달남 계열은 노비가 계인 가장 낮은 지위로 納粟이나 冒稱을 거쳐 노비에서 벗어나고자 했다.⁴⁶⁾

중화 양씨를 비롯한 18~19세기 주요 성관들의 시기별 호수를 살펴 보면, 18세기 지산리에서 중화 양씨 호는 그리 많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성관의 계열이 많았는데, 특히 경주 김씨 애남 계열의 호가 18세기까지는 지산리에서 가장 많았다.

애남 계열은 1714년 7호에서 점차 감소하여 1789년이 되면 4호까지 줄어든다. 이후 1825년이 되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1876년이 되면 16호까지 증가하지만, 중화 양씨 호수에 미치지 못한다. 19세기 애남 계열의 증가세보다 중화 양씨 계열의 호 증가세가 훨씬 컸던 것이다. 다른 성관 계열의 경우, 홍계 계열은 19세기로 갈수록 오히려 호수가 감소했고 달남 계열 호수는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다가 19세기에 들어와 약간 증가한다.

중화 양씨는 1804년까지 4~5호 수준을 유지하다가 1825년부터 갑자기 호수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1846년 16호로 1825년에 비해 호수가 두

을 기재했다. 여성의 호칭은 ‘氏’, ‘姓’, ‘召史’을 사용했다. 이와 관련한 연구에 의하면 호적에서 여성의 호칭에 신분이나 계층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여성의 호칭과 그 신분·계층의 상관관계는 다음 논문을 참고하였다. 김경란, 2003 〈朝鮮後期 『丹城縣戶籍臺帳』의 女性把握實態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42쪽.

44) 15통 6호 김여삼의 처 仁分은 私婢였다.

45) 1714년 이산리: 이종만(2통 2호, 通政大夫), 이득철(4통 2호, 通政大夫), 이두원(4통 3호, 巡別隊), 이석신(6통 3호, 府將官), 이철만(7통 1호, 嘉善大夫)

46) 이후 경주 이씨 달남 계열의 직역은 軍官을 거쳐 1738년 業武, 閑良이 되고 1858년이 되면 幼學 직역에 이르게 된다.

배로 증가한 것이다. 이후 중화 양씨 호는 계속 증가하여 1876년이 되면 22호로 지산리 전체 호에 28%를 차지하게 된다. <표 8> 을 통해 중화 양씨와 다른 성관 계열의 호수 변화를 비교해 본 결과 중화 양씨가 지산리에서 본격적으로 동성촌락을 형성했던 시기는 19세기부터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는 앞서 1장에서 <표 4> 를 통해 1876년 지산리 중화 양씨의 호를 혈연관계에 따라 분류했다. <표 4> 에 따르면 1876년 지산리 중화 양씨는 모두 경림의 후손으로 이들의 혈연관계를 좀 더 세분화하면 달화 계열과 선화 계열로 나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는 지산리 중화 양씨들의 혈연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달화·선화 계열이 중화 양씨 내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 확인해 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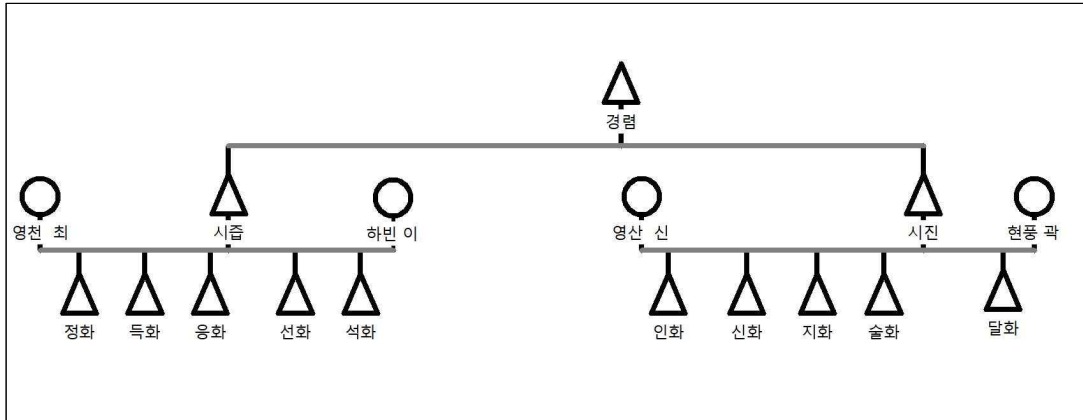
달화와 선화 계열을 알아보기 위해, 이들이 처음으로 《수동면 호적》에 나타났던 18세기 초반 《수동면 호적》을 정리해 보았다. 1714년부터 1747년 달화와 선화의 아버지인 시진과 시즙부터 이들의 자식들 즉, 달화와 선화의 형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⁴⁷⁾ 시즙과 시진에게는 각각 다섯 아들이 있었다. 이들 중 양시진의 자손들은 지산리에 거주했고 시즙의 다섯 아들 중 네 아들은 향덕리에, 하나는 지산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달화 계열에서 달화는 1738년 《수동면 호적》에 이산리⁴⁸⁾ 16통 4호 주호로 처음 등장한다. 달화 계열 외 또 다른 계열인 선화 계열은 1714년 《수동면 호적》에서 향덕리 1통 5호 주호였다.⁴⁹⁾ 선화 당대에는 향덕리에 거주했지만 1804년부터, 선화의 증손자 發 대에 이르러 지산리에 거주하기 시작한다. 시즙과 시진의 자식들을 가계도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47) 최초로 《수동면 호적》에 등장하는 중화 양씨는 경림의 아들인 시즙과 시진의 자손 외에도 경림의 형제인 景湖의 아들 時億의 자손들도 있다.

48) 이산리는 지산리의 이전 里名이다. 1714년 이산리였던 리명은 1789년 지산리로 변경되었다.

49) 선화는 1738년 개명한 이름으로 최초로 호적에 나타났을 때는 德和였다.



<그림 3> 18세기 전반 중화 양씨 경림 가계도

<그림 3>을 보면, 양시진은 영산 신씨 사이에서 네 아들을 두었고 현풍 곽씨 사이에서 양달화를 두었다. 양달화의 어머니 현풍 곽씨의 조상을 추적하면 《수동면 호적》내 많은 현풍 곽씨 호와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있는 달화의 어머니 현풍 곽씨가 수동면 출신임을 추측해볼 수 있다.⁵⁰⁾ 또한 곽씨가 최초로 기록된 1714년 《수동면 호적》을 살펴보면 곽씨가 이산리 13통 3호의 주호인 양신화의 庶母로 기록한다. 양달화는 양시진의 庶子였다. 한편 양선화는 양시즙과 하빈 이씨 사이의 자식이었다. 가계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양시즙은 이미 영천 최씨 사이에서 세 아들 정화, 득화, 응화를 두었다. 앞서 양달화가 양시진의 庶子였다는 것은 《수동면 호적》에서 현풍 곽씨를 통해 알 수 있지만 하빈 이씨의 경우 명확하게 그 지위가 드러나지 않아 양선화의 서자 여부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를 추측할 주변 정황은 《수동면 호적》 통해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

첫 번째 정황은 이들의 외조부 기록이다. 1714년 《수동면 호적》에서 선화와 석화의 四祖 기록 중 외조부 기록을 살펴보면, 외조부 이석생의 직역이 業武로 나타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화, 득화, 응화의 외조부

50) 현풍 곽씨의 조상을 추적해보면 수동면의 현풍 곽씨들이 모두 곽수신의 후손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1714년 현풍 곽씨 주호를 리 별로 정리한 것이다. ①이산리: 곽희원(6통 2호), 곽형일(9통 5호), 곽경일(10통 1호), 곽진기(11통 3호) ②범어리: 곽희운(4통 3호), 곽희천(4통 4호) ③신리: 곽태기(4통 4호), 곽안기(9통 1호), 곽희준(14통 3호), 곽만기(14통 4호)

인 최계항의 직역은 學生이었다. 학생에 비해 업무가 낮은 지위의 직역인 것을 고려한다면⁵¹⁾ 중화 양씨 내에서 선화와 석화의 지위가 시즙의 다른 아들들 보다 낮았을 것이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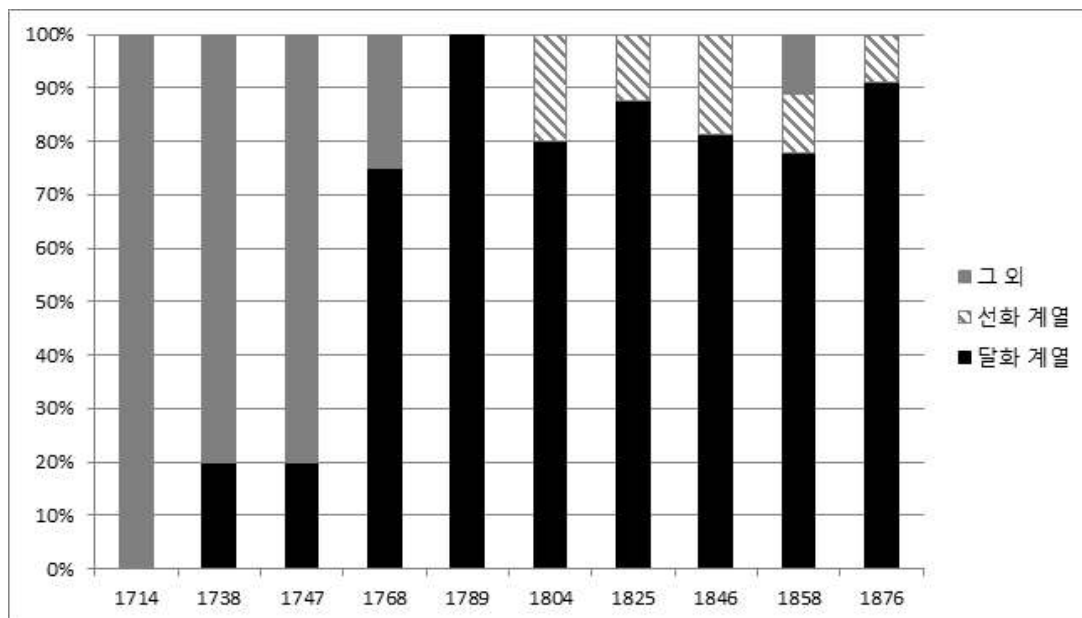
두 번째 정황은 본인들의 직역에서도 찾을 수 있다. 양선화를 비롯한 시즙의 자식들의 직역을 살펴보면 양시즙과 영천 최씨 사이의 세 아들 정화, 득화, 응화는 모두 幼學직역을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 양시즙과 하빈 이씨 사이의 자식인 선화와 석화의 경우 직역이 각각 府將官兼司僕과 校生이었다. 양시즙의 자식이더라도 직역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선화와 석화가 시즙의 다른 세 아들과 달리 대표적인 양반 직역⁵²⁾이라 할 수 있는 幼學 직역을 사용하지 않고 그보다 낮은 신분의 직역이라 할 수 있는 부장관겸사복과 교생을 칭한 것은 어머니가 소실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준다.

마지막으로 선화와 석화의 妻家 기록이다. 선화의 처는 寧海 南氏, 석화는 仁川 蔡氏이다. 1714년 《수동면 호적》에서 선화와 석화의 처는 모두 여성 호칭 중 최상위 호칭인 ‘氏’를 사용하고 있었으나⁵³⁾ 이들의 四祖 기록을 살펴보면 業武가 직역인 조상들을 확인할 수 있다. 영해 남씨는 조부 응홍, 인천 채씨는 아버지 지숙과 외조부 진주 하씨 득우가 업무 직역을 사용했다. 선화와 석화의 1714년 《수동면 호적》 기록을 모두

51) 이준구에 따르면 業武·業儒는 인조대부터 양반들이 사용하는 직역이었으나 사회적으로 양반보다 낮은 지위의 사람들이 쓰는 직역으로 격하되기 시작하여 숙종대 이르러 서얼들이 사용하는 직역이 되었다. 이준구, 1993 《朝鮮後期 身分職役變動研究》, 일조각, 34쪽~44쪽.

52) 幼學이 조선후기 양반들만 사용할 수 있는 직역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최승희와 이준구의 연구에 따르면 16·17세기까지는 양반들이 사용하는 직역이었지만 18세기부터 점차 서얼층을 시작으로 幼學 직역 사용이 법제화 되고 이후 중인, 상민들도 신분 상승을 도모하거나 군역을 피하기 위해 유학 직역을 納粟·冒稱을 하게된다. 이에 따라 19세기 유학 직역자 수는 폭증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유학직역이 양반이란 신분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나 본고에서 분석 식년이 1714년으로 아직 18세기 초에 해당하므로 본격적인 유학 직역 모칭 시기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반 직역으로 유학을 들었다. 최승희, 1989 〈朝鮮後期 「幼學」·「學生」의 身分史的 意味〉 《國史觀論叢》1; 이준구, 1993 위 책.

종합해 보면, 이들이 시즙과 영천 최씨 사이의 자식들보다 지위가 낮았으며 그 낮은 지위는 이들이 시즙의 서자였다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876년 지산리 중화 양씨 호는 모두 시즙과 시진의 庶系 후손이었던 것이다.



〈그림 4〉 지산리 중화 양씨 달화·선화 계열 호 비율 변화

〈그림 4〉는 지산리 중화 양씨 호에서 달화와 선화 계열의 호가 차지하는 비율을 시기별로 나타낸 것이다. 범례에서 ‘그 외’ 항목은 달화나 선화 계열이 아닌 모든 중화 양씨 호이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선화 계열은 18세기 초 지산리에서 찾을 수 없었다. 당시 선화 계열은 향덕리에 있었고 지산리에는 달화 계열만 있었다. 18세기 초, 달화 계열 호는 그리 비중이 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외 항목 호가 많았는데, 18세기 초 그 외 항목 호들은 모두 달화의 적계 형제 호인 인화, 지화, 신화, 술화 계열의 호였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서계와 적계가 공존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1768년이 되면 적계 호의 비중이 줄어들어 지화 후손 호만 남게 되고 이마저도 1789년이 되면 사라지면서 지산리 중화 양씨 중 달화 계열의 호만 남게 된다. 이후 지산리에서는 적계 계열 호를

찾을 수 없다.

호적에서는 사라진 호에 대하여 사유를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18세기 후반 지산리에서 달화 계열만 남고 적계 형제 호가 모두 사라진 이유는 알 수 없다. 한편 호적에서 호의 기록이 사라졌다고 해서 해당 호가 그 마을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호적은 국가에서 각종 부세 수취를 위해 작성한 자료로서 당대의 현실을 반영하고는 있지만, 당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곧바로 이들의 실제 거주 현황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8세기 후반 달화의 적계 형제 호가 호적에서 사라진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고 그 이후 《수동면 호적》 어디에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진의 적계 자손들이 수동면 밖의 다른 곳으로 이거했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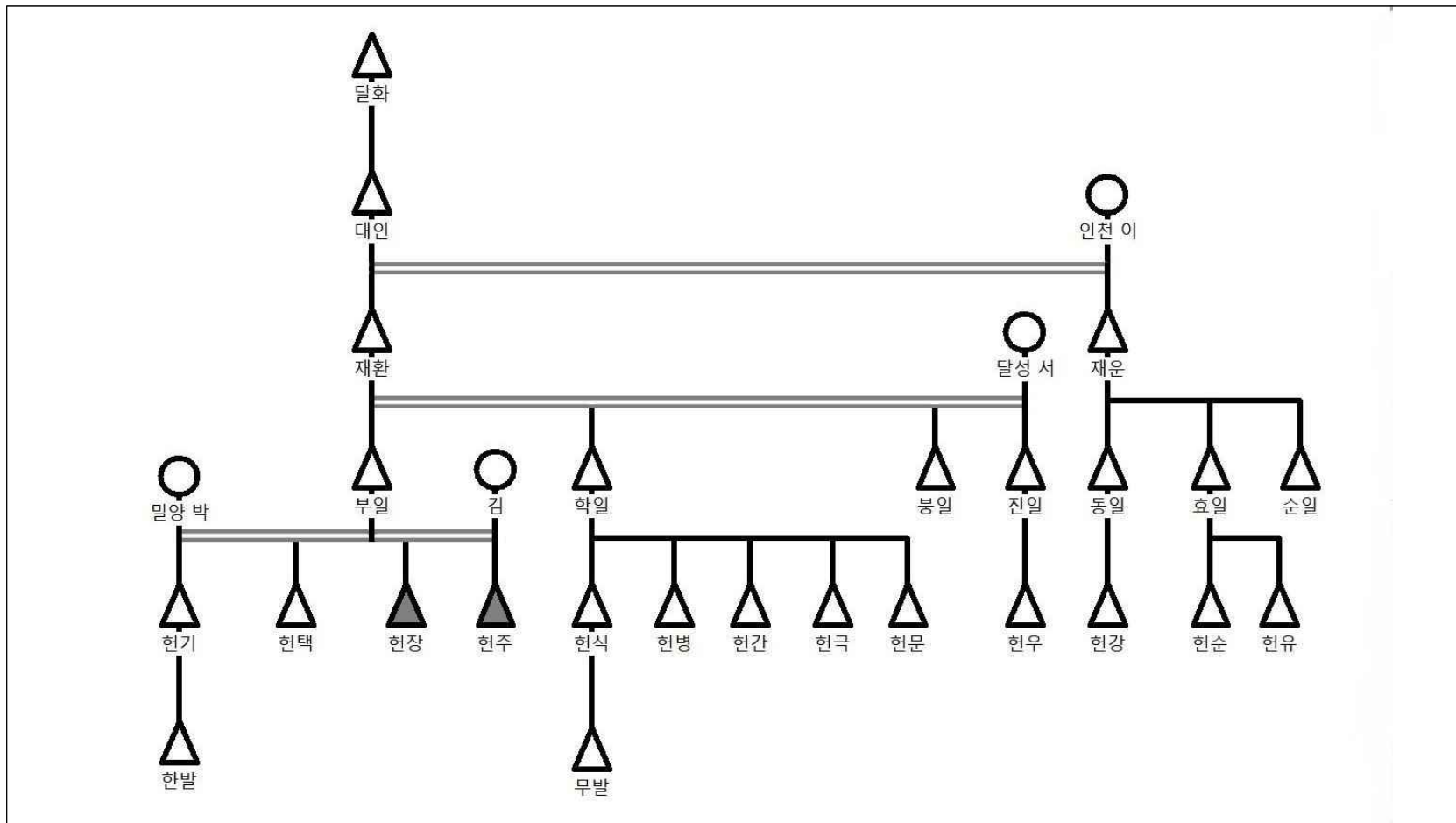
19세기가 되자 지산리에 달화 외에도 선화 계열 호가 나타난다. 많은 비중은 아니지만, 1804년 처음 나타난 이후 1876년까지 꾸준히 지산리에서 보인다. 19세기에는 지산리 중화 양씨 대부분의 호는 달화 계열의 호이다. 달화나 선화 계열이 아닌 그 외의 호들은 지산리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날 뿐이다.⁵⁴⁾ 이를 통해 지산리 중화 양씨 동성 촌락은 서계인 달화 계열이 주도하는 동성촌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산리 중화 양씨 동성촌락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19세기부터였다. 18세기에는 호수가 4~5호 정도로 지산리 전체에서 10%도 못 미치는 비율이었다. 오히려 18세기에는 중화 양씨 보다는 다른 성관 계열의 호수가 더 많았다. 19세기가 되자 《수동면 호적》에서 중화 양씨 호는 크게 증가하여 19세기 중반이 되면 지산리 전체에서 중화 양씨 호 비율이 20%를 넘었으며 1876년에는 28%를 차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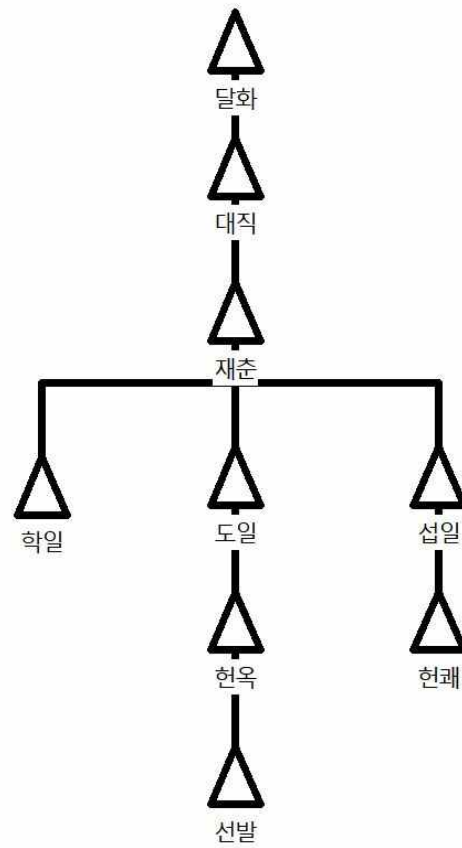
54) 1858년에 잠깐 나타나는 ‘그 외’ 항목의 호는 총 2호이다. 한 호는 양수언(9통 3호)으로 경호-시역-무화에 이르는 계열이다. 이 계열 다른 호는 수동면 두산리와 신태리에 있다. 나머지 하나는 양현순(8통 2호)로 四祖 기록을 보면 학-재영-대봉(父-祖-曾祖 순서)으로 돌림자를 보면 중화 양씨 자손으로 보이나 연결되는 조상이 명확하지 않다.

2. 계열 분화와 동성촌락 바깥의 동성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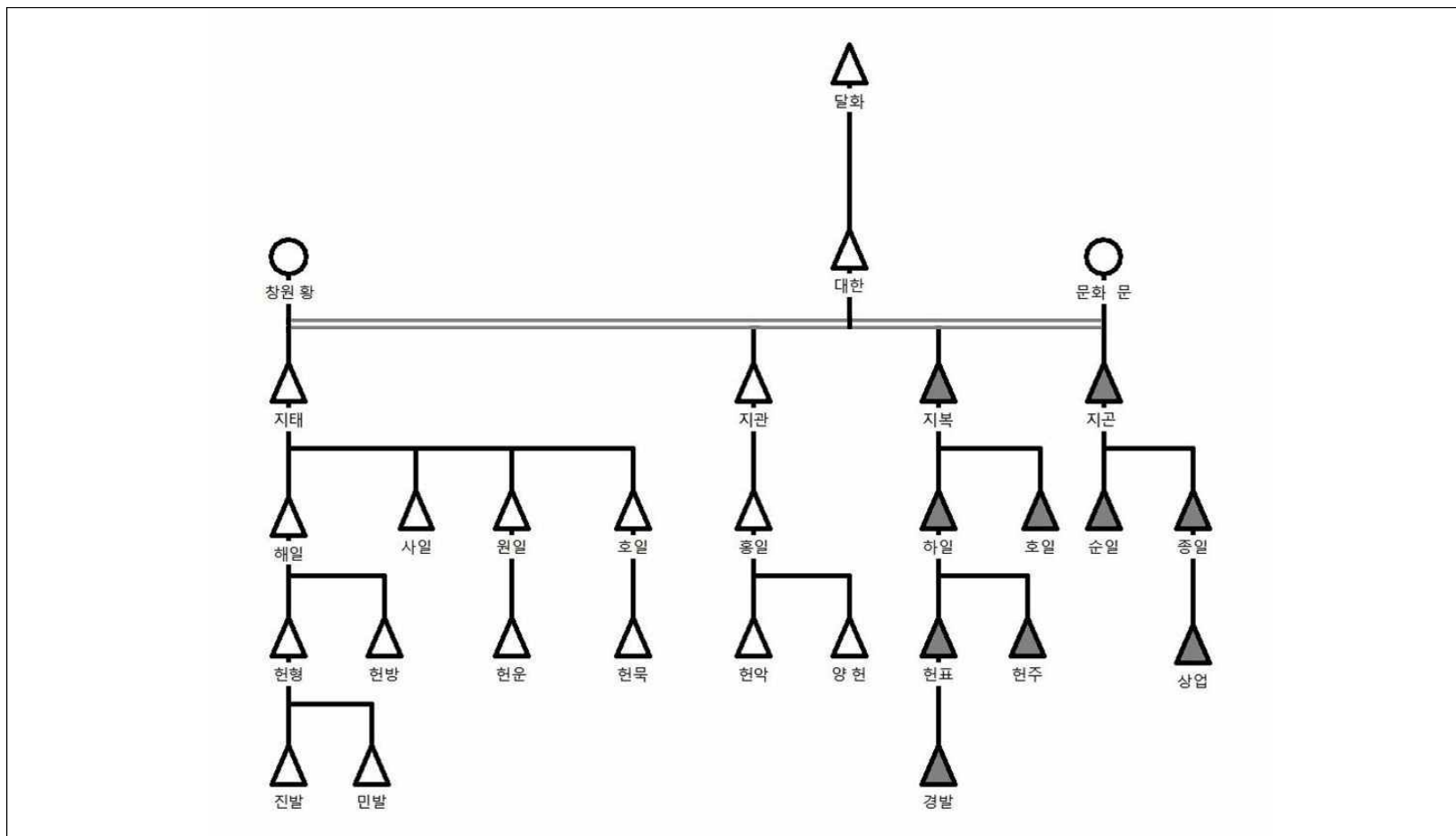
양달화의 후손들이 19세기 지산리를 중화 양씨 동성촌락으로 만드는 것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수동면 호적》을 통해 확인했다. 이번에는 지산리 동성촌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지산리를 중화 양씨 동성촌락으로 형성하는데 주요 역할을 한 양달화의 자손들을 가계도로 만들어 정리해 보았다. 《수동면 호적》에 따르면 양달화부터 양달화의 6대손까지 달화 계열에서만 53명의 주호(중복 제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달화 계열 주호를 대상으로 달화의 세 아들인 大仁(장남), 大直(차남), 大漢(삼남)으로 나누어 가계도를 그려 정리했다.



〈그림 5〉 1768~1876년 중화 양씨 달화-장남(대인) 후손 가계도



〈그림 6〉 1768~1876년 중화 양씨 달화-차남(대직) 후손 가계도



〈그림 7〉 1768~1876년 중화 양씨 달화-삼남(대 한) 후손 가계도

〈그림 5〉, 〈그림 6〉, 〈그림 7〉은 달화 계열 후손들을 달화의 세 아들인 대인, 대직, 대한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 중 대인과 대한의 가계도에서는 회색으로 칠한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수동면 호적》을 통해 소실의 자식들을 표시한 것이다.

먼저 세 계열의 혼인 관계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보자. 양달화는 성주 이씨 사이에서 대인, 대직, 대한 삼형제를 두었다. 부인 성주 이씨는 1714년 지내리 1통 4호의 주호인 이시평의 딸이다. 이시평은 앞서 〈표 8〉에서 지산리 주요 성관 계열로 뽑은 성주 이씨 홍계 계열이다.⁵⁵⁾ 달화의 장남 대인은 인천 이씨와 혼인했다. 인천 이씨는 1747년 신전리 1통 1호의 주호 이만백과 청주 한소사의 딸이다. 인천 이씨의 부계 혈연 관계를 살펴보면 《수동면 호적》에서 여러 친족 호를 찾을 수 있다.⁵⁶⁾ 아버지 달화와 장남 대인이 수동면 내에서 혼처를 구한 것이다. 달화와 대인과 달리 차남 대직과 대한은 각각 김해 허씨, 창원 황씨와 혼인했지만 이들의 친족 관계는 《수동면 호적》에서 찾을 수 없었다.

〈그림 5〉에서 대인의 손자인 부일은 밀양 박씨 사이에서 헌기와 헌택 두 아들을 두었고 다시 김해 김씨 사이에서 헌장과 헌주를 두었다. 1846년 《수동면 호적》에 따르면 김해 김씨는 양부일의 첩이었다. 〈그림 7〉의 대한은 창원 황씨 사이에서 지태와 지관을, 문화 문씨 사이에서 지복과 지곤을 두었다. 문화 문씨는 1804년 《수동면 호적》에서 양대한의 첩으로 기록되어있다. 따라서 서자인 지복과 지곤을 비롯한 이들의 자손들은 모두 대한의 서계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대인과 대한의 서계가 모두 지산리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대한의 서자 지복과 지곤의 자손들의 경우 아들과 손자, 증손자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지산리에서 주호로 나타난다.

55) 이시평 외에도 《수동면 호적》 호는 여러 리에서 찾을 수 있다. ①지내리: 이만지(2통 4호), 이동필(2통 5호). ②향덕리: 이동복(1통 3호) ③신리: 이진석(2통 5호), 이영(12통 1호)

56) 양대인 인천 이씨가 주호 부부로 있는 1747년 《수동면 호적》을 살펴보면, 신전리에서 이만백(1통 1호), 이시해(2통 2호), 이덕해(2통 3호), 이세해(3통 1호), 이신해(3통 3호), 이경해(3통 4호), 이수해(5통 2호), 이진해(6통 5호)까지 총 7호를 찾을 수 있다.

<표 9> 19세기 지산리 대인·대직·대한 후손 호수

연도	대인 (장남)	대직 (차남)	대한 (삼남)
1804	2	1	1
1825	3	2	2
1846	3	3	7
1858	5	2	7
1876	6	4	10

이번에는 19세기 지산리 대인·대직·대한의 후손들을 분류하여 시기별로 정리해 보았다. <표 9>를 보면 19세기로 갈수록 호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대한 계열의 호는 다른 대인·대직 계열보다 19세기로 갈수록 호수가 크게 증가한다. 1825년 2호였던 대한의 후손은 1846년 7호로 다섯 호나 증가하여 같은 시기 장남 대인과 차남 대직의 후손들보다 많은 호가 지산리 호적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1876년 지산리에서 대한의 후손들 호는 10호로 전체 지산리 중화 양씨 호(22호)의 약 45%를 차지한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 <그림 5>와 <그림 7>를 살펴보면 장남 대인의 후손들이 삼남 대한의 후손들만큼이나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그림 5>와 <그림 7>에서 달화의 5대손 중 대인의 후손들은 14명이고 대한의 후손들은 9명이다. 그 다음 代인 달화 6대손 역시 대인은 2명, 대한은 3명으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1876년 대인과 대한 후손의 호수를 비교해 보면 대한이 대인보다 4호 더 많다. 비슷한 시기 《수동면 호적》에서 장남인 대인 계열의 호가 삼남인 대한 계열보다 더 많았지만 지산리에서는 오히려 삼남인 대한 계열 호가 더 많은 것이다.

지산리에서 장남 대인 계열 호보다 삼남 대한 계열 호가 많은 것은 장남 계열의 호가 지산리 외 다른 리에도 분포했기 때문이다. 1825년까지 달화의 장남 대인과 대인의 아들 재환, 재운은 모두 지산리에 있었다. 그

러나 1846년이 되자 장남 계열의 몇몇 호가 향덕리와 두천리로 갔다. 향덕리에는 재환의 아들 봉일과 손자 헌택이, 두천리에는 재환의 또 다른 아들 진일과 재운의 아들 효일이 있었다.⁵⁷⁾ 1858년에는 장남 계열 11호 중 6호가 향덕리와 두천리에서 나타난다.⁵⁸⁾ 장남 계열의 절반 이상이 지산리가 아닌 지역에 거주한 것이다. 마지막 분석 식년인 1876년에는 이보다 1호 적은 5호가 향덕리와 두천리에 있었다.⁵⁹⁾

1846년부터 1876년까지 3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기이기는 하나 2대에 걸쳐 향덕리와 두천리에 사는 경우도 있었다. 재환의 손자 헌식은 1858년 향덕리에 거주했다. 이후 1876년이 되자 헌식의 아들 무발이 호를 계승했다. 두천리의 경우 1846년 효일이 주호로 있었고 이후 1858년에는 효일의 아들 헌순이 두천리 주호로, 1876년에는 효일의 또 다른 아들인 헌유가 주호로 나타난다. 이렇게 2대에 걸쳐 향덕리와 두천리에 나타나는 호를 통해 이들의 거주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9세 중반부터 달화의 장남 계열 호 중 절반이 다른 리에서 있었던 것과 달리 차남 대직과 삼남 대한 계열의 호는 지산리에서만 나타날 뿐 다른 리에서는 보이지 않는다.⁶⁰⁾ 《수동면 호적》 분석 시기보다 뒤 시기이지만 삼남 계열의 양해일 양헌방 부자의 호행으로 조정에서는 1891년경 정려를 내렸다는 기록이 있다.⁶¹⁾ 1876년 삼남 계열 호가 지산리 중화 양씨 전체 호의 약 45%를 차지했고 다른 리가 아닌 지산리에서만 집중적으로 호가 나타난 것을 고려한다면 지산리에서 삼남 계열 대한의 후손들은 결집력이 상당했을 것이다. 호적 자료가 당대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57) 1846 《수동면 호적》 ①향덕리: 양봉일(3통 4호), 양헌택(5통 4호) ②두천리: 양진일(2통 1호), 양수일(6통 2호)

58) 1858 《수동면 호적》 ①향덕리: 양형일(3통 2호), 양봉일(3통 4호), 양헌택(5통 4호), 양헌정(6통 3호) ②두천리: 양진일(2통 1호), 양헌순(6통 2호)

59) 1876 《수동면 호적》 ①향덕리: 양순일(3통 3호), 양헌극(3통 4호), 양헌택(5통 4호), 양무발(6통 3호), 양헌유(6통 2호) ②두천리: 양헌유(6통 2호)

60) 딱 한 번 1825년 삼남 대한의 아들 지곤이 향덕리 3통 3호의 주호로 나타났다. 하지만 1846년이 되면 다시 지산리 1통 4호의 주호로 돌아온다.

61) 해일·헌방 부자의 정려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에 소재한다. 현재 효자각이라는 이름으로 수성구에서 향토문화 유산으로 소개한다.

사람을 기록한 것이 아닌 것을 고려하면 지산리 중화 양씨 동성촌락을 삼남 계열이 주도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다만 삼남 계열의 호수와 혈연적 결집력을 볼 때 지산리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했을 것이다.

장남 대인 계열의 일부 후손들은 혈연적으로 가까운 호가 많은 지산리를 벗어나 향덕리와 두천리에 거주했다. 대인 계열이 지산리를 벗어나 이거한 향덕리와 두천리는 달화의 후손들과는 또 다른 계열의 중화 양씨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 이번에는 지산리 동성촌락 외 다른 리의 중화 양씨들과 지산리 중화 양씨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해볼 것이다. 이미 선화 계열을 설명하면서 잠시 언급했지만 수동면에는 지산리 외 다른 리에도 중화 양씨가 세거하며 살고 있었다. 18세기 초 수동면에 있었던 중화 양씨를 계열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8세기 초반 수동면 중화 양씨는 크게 세 계열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경림-시진으로 이어지는 계열, 두 번째는 경림-시즙 계열이다. 시진과 시즙은 형제지간이다. 세 번째는 경호-시억 계열이다. 경호-시억 계열에서 경호는 경림과 형제 관계이다. 시간이 지나 19세기가 되면 경림-시진의 자식 중 달화의 후손들만 남게 되고 경림-시즙의 자손 중에서는 선화의 후손만 남았다.

<표 10> 수동면 7개 리 내 중화 양씨 계열별 호 변화

연도	계열	지산리	향덕리	범물리	이전리	신덕리	두산리	두천리
1714	경림-시즙	1	5					
	경림-시진	3						
	경호-시억						3	
1738	경림-시즙	1	6					
	경림-시진	4						
	경호-시억						3	

1747	경림-시읍		6					
	경림-시진	5						
	경호-시역						5	
1768	경림-시읍		4			3		
	경림-시진	4				1		
	경호-시역			1			2	
1789	경림-시읍		2			7		
	경림-시진	4				1		
	경호-시역			1			1	
1804	경림-시읍	1						
	경림-시진	4						
	경호-시역							1
1825	경림-시읍	1	3			2		
	경림-시진	7	1					
	경호-시역							1
1846	경림-시읍	3	3					
	경림-시진	13	2					2
	경호-시역					1		1
1858	경림-시읍	2	2					
	경림-시진	14	4					2
	경호-시역	1				1		1
1876	경림-시읍	2	2					
	경림-시진	20	4					1
	경호-시역						1	

〈표 10〉는 식년별로 수동면 7개 리에서 중화 양씨 세 계열 호의 분포를 정리한 표이다. 표를 살펴보면 수동면 7개 리 중 주로 지산리와 향덕리에 중화 양씨 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계열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경림-시즙 계열은 18세기부터 주로 향덕리에 있었다. 1768년부터 1789년까지 신덕리로 이거하기도 했지만 19세기에는 다시 향덕리와 지산리에서 나타난다. 경림-시진계열은 18세기까지 지산리에만 있었으나 19세기가 되자 지산리 외에도 향덕리와 두천리로 갔다. 경호-시역계열의 경우 18세기에는 주로 두산리에 있었지만 19세기가 되면 두천리, 두산리, 신덕리 등 여러 리에서 보인다. 변동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경림-시즙 계열은 향덕리, 경림-시진 계열은 지산리, 경호-시역 계열은 두산리·두천리에 있었다. 19세기 중반 달화의 장남 대인 계열의 호가 지산리를 떠나 향덕리와 두천리로 간 것은 그곳에 다른 중화 양씨들이 살았던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세 계열의 호 변화를 살펴보면 지산리 경림-시진 계열과 향덕리 경림-시즙 계열이 가까운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1714년부터 경림-시즙 계열 중 한 호가 경림-시진 계열이 있는 지산리에 거주하고 있었다.⁶²⁾ 이후 19세기가 되면 다시 경림-시즙계열의 호가 지산리에 가기도 하고 반대로 경림-시진 계열의 호가 향덕리로 이거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19세기 내내 이어진다. 이를 통해 지산리와 향덕리의 중화 양씨들이 서로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경림-시진과 경호-시역은 18세기에는 이렇다 할 수 있는 호의 왕래가 보이지 않다가 19세기 중반이 되어서야 보이기 시작한다. 계열별로 경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여러 영향이 있겠지만 이들의 사회적 지위와 혈연적 친소관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경림과 경호 모두 양우정의 자식들이었지만 《수동면 호적》에서 이들의 직역을 살펴보면 사회적 지위에서 차이가 보인다. 경림은 아무런 관직이 없는 學生 직역이었다면 경호의 경우 직역이 成均生員이었다. 별다

62) 1714년 《수동면 호적》 이산리 양정화(9통 2호)

른 일이 없었다면 성균 생원을 조상으로 둔 자손들이 아무런 관직이 없었던 자손들보다 지방 사회에서 사람들이 우대했을 것이다. 게다가 19세기까지 존속하는 경림의 후손들은 선화와 달화의 후손들로 이들은 앞서 《수동면 호적》을 통해 모두 서계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반면 경호-시역의 자손들은 적게 자손이었다.

18~19세기 서계의 사회적 지위를 살펴보면 조선후기 서계 자손의 지위는 신분 상승 운동과 정부에서 실시한 일련의 개혁으로 개선되었다. 18세기가 되면서 서얼은 과거 시험을 볼 수 있게 되고 향안 입록과 향교 출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서얼의 자손들도 합법적으로 幼學 직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⁶³⁾ 그러나 이것은 법적인 서얼의 지위 상승이었고 실제로 서계는 여전히 향촌 사회 사족들과는 동등한 지위를 누릴 수 없는 차별 받는 낮은 지위의 존재였다. 향회에 참석할 때면 사족들과는 다른 자리에 앉아야 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서원 출입이 거부되기도 했기 때문이다.⁶⁴⁾ 이러한 조선 후기 서얼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한다면 경림-시진 계열과 경림-시즙 계열 관계가 경호-시역 계열보다 가까웠던 것에 한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다.

다음은 혈연적 친소관계이다. 경림-시진과 경림-시즙은 모두 경림의 후손들이다. 경호-시역 계열보다는 혈연적으로 가깝다. 1876년을 기준으로 경림-시진과 경림-시즙 계열의 호를 촌수로 따지면 최대 15촌에 이르지만⁶⁵⁾ 경호-시진과 경호-시역 계열은 최대 17촌에 이른다.⁶⁶⁾ 앞서 서술했듯이 경호-시역 계열도 경림-시진 계열과 양우정의 후손이라는 점에서 혈연적 연관성이 있지만 경림-시진과 경림-시즙보다는 떨어져 있

63) 배재홍, 1987 〈朝鮮後期 庶孽許通〉 《경북사학》 10, 129쪽.

64) 서얼의 신분 상승과 차별에 관련한 내용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권기석, 2010 〈조선시대 족보의 입록계층 확대와 한계-범례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55, 조선시대사학회, 127~178쪽; 배재홍, 1992 〈조선후기 향촌사회에서 庶孽의 존재양태와 鄉戰〉 《慶北史學》 15, 39~67쪽; 허모영, 2019 〈19세기 김해지역 향반가문의 적서 변증과 탈종을 둘러싼 갈등〉 《진단학보》 132, 249~281쪽.

65) 1876년 지산리 양한발(11통 4호)와 향덕리 양필봉(11통 4호)

66) 1876년 지산리 양판발(11통 4호)와 두산리 양필문(4통 2호)

다.

사회적 지위의 차이와 혈연적 친소에 따라, 같은 중화 양씨이지만 더 자주 왕래하는 계열이 있는 것이다. 두 가지 요소 중 동성집단의 관계에 더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확인할 수 없으나, 적어도 동성동본이더라도 다른 여러 요소에 따라 동성집단 사이에 친밀함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맺음말

지금까지 《수동면 호적》을 활용, 수동면 내 일곱 개 리에서 동성촌락을 검토하여 지산리 서계 동성촌락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고에서는 《수동면 호적》으로 동성촌락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전혀 혈연적인 관계가 없는 이들도 동성동본으로 집거하여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지산리 중화 양씨의 경우 四祖를 추적해본 결과 모든 지산리 중화 양씨가 혈연적으로 연관이 있음을 확인했고 지산리를 중화 양씨 동성촌락으로 보았다.

지산리 중화 양씨 동성촌락은 호수의 변화를 미루어볼 때 19세기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산리를 중화 양씨 동성촌락으로 이끈 것은 경림-시진의 아들인 달화의 후손들이었다. 달화는 시진과 소실 현풍 곽씨 사이의 아들로 서자였다. 18세기 초 달화와 함께 있던 시진의 적계 형제들은 18세기 중반이 되면서 모두 사라지고 지산리에는 달화만 남았다. 이로 인해 지산리는 달화 계열의 서계 동성촌락이 된 것이다.

한편 19세기 서계 동성촌락으로 형성되어가는 지산리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수동면 호적》에서 달화의 후손들을 추적했다. 18세기 지산리에서는 서계와 적계가 공존하지 못하고 적계가 지산리를 떠나는 가운데 서계는 남았다. 그러나 19세기 달화의 후손들은 적계와 서계가 대를 이어가며 공존하고 있었다. 한편 지산리 달화의 후손들은 달화의 세 아들로 계열을 나뉘 볼 수 있는데 이 중 차남과 삼남이 지산리에 모여 살며 결집했던 반면에 장남 대인 계열의 호는 지산리 외에 향덕리와 두천리로 나뉘어 살게 되었다. 특히 삼남의 경우 지산리 중화 양씨 호의 약 절반 가량을 차지하여 지산리 중화 양씨 동성촌락 형성에 상당한 힘을 보탬던 것으로 보인다.

서계 동성촌락은 지금까지 적계 동성촌락과의 관계 속에서 다뤘다. 적계 동성촌락의 배타성에 의해 발생한 것이 서계 동성촌락이라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르게 이번 수동면 지산리 서계 동성촌락의 경우 서계와 적계

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적계의 수동면 지역 이탈과 서계의 존속으로 형성되었다. 이는 서계 동성촌락 형성에 새로운 사례로서 앞으로 좀 더 많은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볼 만한 문제이다. 또한 적장자가 중심이 되는 조선후기 친족질서 아래에서 지산리에서는 장남이 동성촌락을 이탈하고 삼남은 오히려 동성촌락 형성에 상당한 기여했다. 이러한 사례는 새로운 동성촌락에 대해 논의 거리를 제공해주었다고 생각한다. 조선후기 친족 질서에서 적장자 외의 다른 자식들의 영향력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역시 앞으로 동성촌락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호적 자료는 모든 신분과 계층을 망라하며 수많은 성관의 사람들을 기록한 자료이므로 호적 자료를 활용한다면 기존 동성촌락 연구에서는 알 수 없었던 다양한 동성촌락 사례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본 연구는 수동면 지산리라는 한 지역의 사례 연구로서 새로운 현상을 포착해 내기는 했지만 이를 통해 동성촌락의 일반론적 이론을 펼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호적을 활용하여 더 많은 동성촌락 사례 연구가 많아진다면 조선후기 대표적인 촌락 형태인 동성촌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I. 사료

1. 데이터 베이스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09, 《慶尙道大丘府守東面戶籍大帳》 전
산데이터베이스

臨時土地調査局, 《朝鮮五萬分一地形圖-達城君》, 국토정보맵
(<http://map.ngii.go.kr/ms/map/NlipMap.do>)

2. 문헌 사료

《慶尙道大邱郡邑誌》

《嶺南人物考》

《成宗實錄》 《中宗實錄》

《四佳文集》

《大峯集》

II. 연구저서

1. 단행본

1) 한국어

김택규, 1979 《氏族部落의 構造研究》 일조각

대구시사편찬위원회, 1995 《大邱市史》 1

대구향토문화연구소, 1997 《국역 대구부읍지》, 대구광역시

대동문화 연구원 호적대장 연구팀, 2003, 《단성 호적대장연구》, 성균관
대학교 대동문화 연구원

박도식, 2013 《강릉의 동족마을》 서울: 채륜

오영교, 2004 《강원의 동족마을》 집문당,

이준구, 1993 《朝鮮後期 身分職役變動研究》, 일조각
 이해준, 2002 《조선시기 촌락사회사》, 민족문화사
 全炯澤, 2002 《신편 한국사》 34, 국사편찬위원회
 정만조, 2004 《集姓村과 士族》, 서울:국민대학교 출판부
 정석중, 1983 《朝鮮後期社會變動研究》, 일조각
 정진영, 1998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조선사연구회, 2002 《조선시대 대구의 모습》, 계명대학교출판부
 택민국학연구원, 2009 《대구지명유래총람》, 대구:대구광역시
 최재석, 1975 《한국농촌사회연구》, 일지사, 197쪽.

2) 일본어

善生永助, 1933 《朝鮮の聚落》 後篇

2. 논문

권기석, 2010 〈조선시대 족보의 입록계층 확대와 한계-범례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55
 권내현, 2004 〈조선후기 호적과 족보를 통한 동성촌락의 복원〉 《大東文化研究》 47
 _____, 2006 〈조선후기 동성촌락 구성원의 통혼 양상-단성현 신등면 안동권씨 사례〉 《한국사연구》 132
 _____, 2010, 〈조선후기 평민 동성촌락의 성장〉, 《민족문화연구》 52,
 김건태 2014 〈조선후기 호구정책과 문중형성의 관계-제주도 대정현 하모리 사례〉 《한국문화》 67,
 김경란, 2003 〈朝鮮後期 『丹城縣戶籍臺帳』의 女性把握實態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 2010 〈조선후기 土姓의 변화와 존립형태-慶尙道 丹城縣을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57
 _____, 2013, 〈조선후기 無姓層의 존재형태와 획득 경로〉,

《사학연구》

- _____, 2016. 〈조선후기 대구부 同性마을 형성시기에 대한 검토-『경상도대구부호적대장』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123
- _____, 2017 〈조선후기 평민 동성마을 형성과 특징-大丘府 解北村 廣里의 丹陽 禹氏 사례〉 《사학연구》 128
- 김경옥, 2003 〈조선후기 동성마을의 형성배경과 사족들의 향촌활동-전라도 영암 영보리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6(2)
- 김미영, 2008 〈동성마을 정착과정에 나타난 친족이념의 변천양상-안동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실천민속학연구》 11
- 김숙희 외, 1972 〈18세기 농촌의 사회구조 경상도 단성현의 경우〉 《역사와 세계》 3,
- 김인걸, 1984 〈조선후기 鄉村社會統制策의 위기-洞契의 성격변화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58
- 김필동, 2000 〈한국 종족(宗族) 집단의 형성과 변동〉 《농촌사회》 10
- 박현순, 2002, 〈18세기 丹城縣의 面里 편제〉 《大東文化研究》 40
- 배재홍, 1987 〈朝鮮後期 庶孽許通〉 《경북사학》 10
- _____, 1992 〈조선후기 향촌사회에서 庶孽의 존재양태와 鄉戰〉 《慶北史學》 15
- 손병규, 2004 〈17·18세기 호적대장의 私奴婢 기재실태〉 《고문서연구》 24
- _____, 2018 〈戶籍과 族譜의 자료적 특성과 연구방법-17C~20C 초 丹城地域 培養洞李氏들을 추적하며〉 《大東文化研究》 102
- 양보경, 1980 〈半月面四里同族部落에 대한 研究〉 《地理學研究》 7
- 이해준, 1985 〈朝鮮後期長興傍村의 村落文書—湖南地方한 同族部落의 組織—〉 《邊太燮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 전중환, 2014 〈『朝鮮の聚落』(1935)을 통해 본 한국 宗族村落의 기원과 분포〉 《문화역사지리》 26(2)
- 정승모 1993 〈동족촌락의 형성배경〉 《정신문화연구》 16(4)
- 정진영. 2000 〈18세기 호적대장 ‘戶口’기록의 검토-「族譜」·「洞案」類와의

- 비교〉《韓國中世史論叢-李樹健教授停年紀念》論叢刊行委員會,
_____, 2007 〈역사인구학 자료로서의 호적대장 이용을 위한 기초
연구-《대구부호적대장》과 촌락문서의 비교검토〉《大東文化研究》59,
_____, 1991, 〈조선후기 동성마을의 형성과 사회적 기능〉《한국사
론》21
최승희, 1989 〈朝鮮後期 「幼學」·「學生」의 身分史的 意味〉《國史觀
論叢》1.
최협, 1983 〈同族部落과 非同族部落의 한 比較-전남 광양지역 사회인류
학적 조사보고서〉《호남문화연구》13

Abstract

18~19th Century Single-lineage
village Formation process.
-Analysis of Sudong-myeon Household
register

Kim, Mi-young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gle-lineage villages was a typical village form that emerged based on a new kinship order centered on patriarchal relatives in the late Joseon Dynatsy. This thesis i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Family name between the local people and the their families by using the Household register in Sudong-myeon, Daegu, in the 18th and 19th century, to review the single-lineage villages and their formation.

The study of single-lieage villages using ancient documents was difficult to objectively identify the size of the single-lineage groups in the single-lineage village. Household register records all the statuses and various family name of the time, making it easy to identify the

size of the single-lineage groups in single-lineage villages. In addition, information on family relationships and ancestors can be provided to review single-lineage villages based on patriarchal kinship.

First, using the household register of Sundong-myeon, Daegu,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I analyzed the surname of household and find out the housing of the single-lineage groups in the village of Sudong-myeon. In the late 19th century, Junghwa Yang lived in Jisan-ri, Sudong-myeon, Daegu, and Miryang Park lived in Beommul-ri. Next, I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Junghwa Yang households in Jisan-ri and Miryang Park households in Beommul-ri, who had clearly lived together. As a result, it confirm the blood-related relationship in all the household of Junghwa Yang in Jisan-ri, but it was found that Miryang Park in Beommul-ri was divided into five blood-related families. In the late 19th century, single-lineage village was in Sudong-myeon, Daegu, where the Junghwa Yang clan lived intensively.

It was around the 19th century that Jisan-ri became a single-lineage village of Junghwa Yang clan. According to household register data, the number of Junghwa Yang household in Jisan-ri in the 18th century was not much larger than the number of other clan household. However, the number of household increased rapidly in the 19th century, and by the late 19th century, the Junghwa Yang clan took up one-third of the total number of household in Jisan-ri. Among them, the descendants of Yang Dal-hwa contributed the most to the formation of the single-lineage village. This is because most of the Junghwa Yang clan in Jisan-ri in the late 19th century were descendants of Yang Dal-hwa. Yang Dal-hwa was an 18th century

figure and a child of a concubine who born between Yang Gyeongryeom and Hyeonpung Kwak. Until the 18th century, legitimate and illegitimate lines of Junghwa Yang kin groups coexisted in Jisan-ri. Gradually, legitimate lines of Junghwa Yang kin groups disappeared, and the descendants of Yang Dal-hwa, a child of a concubine, became the main characters to form the single-lineage village of Junghwa Yang.

In Jisan-ri in the 19th century, the number of descendants of Yang Dal-hwa increased in earnest. Among them, there are more descendants of Yang Dalhwa's third than the descendants of eldest son. Eldest son's families lived in Hyangdeok-ri and Ducheon-ri besides Jisan-ri, all of third son's families lived in Jisan-ri. Meanwhile, the Junghwa Yang group in Jisan-ri were also related to the Junghwa Yang group in Sudong-myeon outside Jisan-ri. In particular, people of Junghwa Yang in Jisan-ri frequently visited Junghwa Yang who lived in Hyandeok-ri. This was due to close blood-related between Junghwa Yang in Jisan-ri and Hyandeok-ri.

Household register data covers all status, class, and family name. If you use household register data, you can find example of various single-lineage villages that were not known in the existing single-lineage studies. This study is an example of the process of forming single-lineage village in the late Joseon Dynasty. If the research is conducted using additional local household registry data, it will greatly help to understand single-lineage village in the late Joseon dynasty.

keywords : Single-lineage village, Daegu, Household register,
Child of a concubine, Kinship, Villages

Student Number : 2015-22457